

# 문화 서울

2024 11 VOL. 213

문화서울



1



함경아 <유령 그리고 지도>

함경아는 자신이 바라보고 경험한 오늘날의 사회를 세 개의 악장으로 구성해 이번 전시에 공유한다. 전시 제목의 '유령'이란 이사회를 작동시키는 모든 지식과 욕망을 환영으로 치환한 것이다. 2015년 전시에서 '유령 발자국'이라는 제목으로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사이의 역할을 고찰했다면, 2024년에는 실체가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 사이를 횡단하며 작가가 그려나가는 세계(지도)를 선보이고자 했다.

11월 3일까지 | 국제갤러리 K1·K3·한국 | 02.735.8449



10.18 - 11.17  
당현천 산책길  
2024 Nowon Moonlight Walk  
숨  
빛과 함께하는 노원달빛산책  
노원문화재단은 친환경 생태 하천인 당현천 산책길 내 상계역부터 중계역까지 2킬로미터 구간에서 공공미술 빛조각축제 '노원달빛산책'을 개최한다. '숨'이라는 주제를 통해 생명의 원천, 조화와 순환의 섭리, 휴식을 상상하는 41개의 빛조각, 한지 등, 뉴미디어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누구나 누릴 수 있다.  
11월 17일까지 | 당현천 산책로 | 02.2289.3489

세계양금축제 in 서울  
2년 주기로 아시아와 유럽 국가에서 교차로 개최하고 있는 세계양금축제가 올해 한국에서 막을 올린다. 나라별 다양한 양금을 만나고, 각종 음반과 책·자료 등을 나누며, 전통악기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제의 장을 펼친다. 11월 3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4일부터 7일까지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각종 공연과 학술대회, 전시를 진행한다. 8일에는 세계양금콩쿠르가 열릴 예정이다.  
11월 3일부터 8일까지  
국립국악원·강북문화예술회관 | 02.994.8502



4



국립창극단 <이날치傳>

양반집 머슴으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소리꾼이 된 고집 센 남자, 이날치의 이야기가 창작극으로 탄생한다. 조선 후기 8명칭 중 한 사람이자, 날쌔게 줄을 잘 탄다고 해서 '날치'라 불린 이경숙의 삶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국악·가요·클래식 음악을 넘나들며 방송·공연 대본을 다뤘은 윤석미가 극본을 쓰고, 창작집단 타루 대표 정종임이 연출했다. 작창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예능보유자 윤진철, 작곡과 음악감독은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는 손다혜가 맡았다. 이야기는 역사 기록을 토대로 작가의 상상력을 불어넣어 완성했고, 예인으로 살았던 주인공의 삶을 우리 소리와 다채로운 전통 연희로 바꾸었다. 주인공 '이날치' 역에 이광복·김수인이 더블 캐스팅됐다.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02.2280.4114

5

<나의 보물, 나의 유산>

서울역사박물관은 2023년 기증 유물을 소개하는 특별전 <나의 보물, 나의 유산>을 2025년 3월까지 진행한다. 2023년 한 해 박물관은 25곳으로부터 6,594점의 유물을 기증받았는데, 그중 800여 점을 선별해 전시하는 것. 1부 전통 시대, 2부 현대 유물로 구성해 기증품에 관한 사연을 함께 소개한다. 더불어 최근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집 목판도 공개한다. '한국의 유교책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시대 책판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25년 3월 16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B  
02.724.0160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제171회 강남마티네콘서트>  
클래식 음악 저변 확대를 위해 '위대한 작곡가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11월 7일 마티네 콘서트를 연다. 낭만주의 시대를 화려하게 장식한 엘가 첼로 협주곡과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2·4악장을 들려준다. 첼리스트 이정란이 협연자로 함께하며, 지휘는 김홍식이 맡았다.  
11월 7일 오전 11시 | 광림아트센터 장천홀 | 02.6712.0534

<인투 더 리듬: 스코어로부터 접착지대로>  
아르코미술관은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 스위스를 중심으로 출판·기획 활동을 하는 비영리 조직 온큐레이팅의 큐레이터 도로시 리히터·로날트 콜프와 협력 주제기획전을 준비했다. 큐레토리얼 실천과 전시의 형식 실험을 통해 동시대 현대미술의 비평적 담론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는 이들은, 미술관을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과 개입, 상황이 벌어지는 '접착지대'로 전환을 모색한다. 이에 음악·시·춤 등 퍼포먼스를 위한 가이드이자 설명 수단인 '스코어'를 키워드로 설정해 다양한 출품작을 소개한다. 전시 기간 다양한 워크숍이 준비됐으니 나열된 작품만으로 이해가 어렵다면 참고해도 좋겠다.  
11월 3일까지 | 아르코미술관 | 02.760.4850



7

국립현대무용단 <청, 연>

'청년의 때, 푸른 해'의 의미를 담은 국립현대무용단의 신작이 11월 공연된다. 청년교육단원 사업의 일환이며, 총 네 편의 신작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안무가 권혁·임선영과 일본 출신의 마리코 카키자키, 미국·러시아 출신의 메건 도헤니·일리아 니쿠로프가 창작에 참여했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립현대무용단 청년교육단원으로 선발된 무용수 18명이 함께한다.  
11월 23일과 24일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02.3472.1420



8

창작하는 타루 <귀명창 프로젝트>

금나래아트홀 상주단체 '창작하는 타루'와 함께하는 특별한 국악 체험. 판소리·민요 등을 들어보고 함께 불러보며 귀명창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11월 한 달간 세 차례 열린다. 청년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며, 금천구민 또는 금천구 소재 직장인을 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월 13·20·27일 | 금천구립간사도서관 | 070.8831.5347



9

<서도호: 스펙클레이션>

서도호의 삶과 세상에 관한 성찰, 미래에 대한 상상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스펙클레이션(speculation)'을 사유의 전락으로 삼아 작가가 탐구해온 주제인 시간·공간·기억·움직임을 재구성했다. 작가는 그간 실제 거주한 집이나 작업실 공간을 천으로 구현해 장소 특정적 미술을 선보여왔는데, 이번 전시는 작가의 공간이 아닌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사유 과정 자체를 경험하도록 제안한다. 인간과 환경의 변화하는 관계, 위기와 도전 등 현시대에 존재하는 작가의 사유를 가까이서 느낄 기회. 전시 기간 매일 아트홀에서 스크리닝 프로그램이 상영되니 함께 관람해도 좋겠다.

11월 17일까지 | 아트선재센터 | 02.733.8949



10

12

퀴드거울클래식 <고잉홀프로젝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출신 음악가들, 그리고 한국을 제2의 집으로 삼는 음악가들이 하나 되어 만든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2022년 첫발을 내디딘 고잉홀프로젝트가 울거울 대학로극장 퀴드를 찾는다. 음악감독·상임지휘자를 두기보다 모든 음악가가 능동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는 앙상블을 꿈꾸는 이들이 들려줄 음악을 기대해도 좋다.

11월 26일 오후 7시 30분 | 대학로극장퀴드 | 1577.0369



서울무용센터 입주예술가 작업공유회  
서울무용센터 2024년 하반기 입주예술가의 작업공유회가 11월 2일 열린다. 국내 유일의 무용 장르 특화 창작공간인 서울무용센터는 입주예술가의 활동을 4단계 인큐베이팅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네 명의 예술가는 지난 9월 한 차례 과정공유회를 진행했고, 이를 발전시켜 좀 더 완성도 높은 작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김원영 <보철(물)로서 움직이기-머신/어포던스/케어>, 정채민 <모릴패닉>, 민희정 <신무\*와 도구들>, 이대호 <메테오>가 진행되며, 관객과의 대화도 예정돼 있다.

2024 서울무용센터 입주예술가 작업공유회 <해박기>

2024.11.2.(토) 서울무용센터



조용진·황태인 <조금만 바꿔볼까?>  
'한국무용은 동시대 관객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장르인가?' 국립무용단에서 10년 넘게 활동한 조용진·황태인은 이러한 질문의 끝에서 한국무용을 고정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자유롭고 열린 춤으로 다뤄보려 한다. <기분발용법>, <무무> 등 각자 안무작을 발표한 경험이 있는 두 사람이 만들어낼 젊은 한국춤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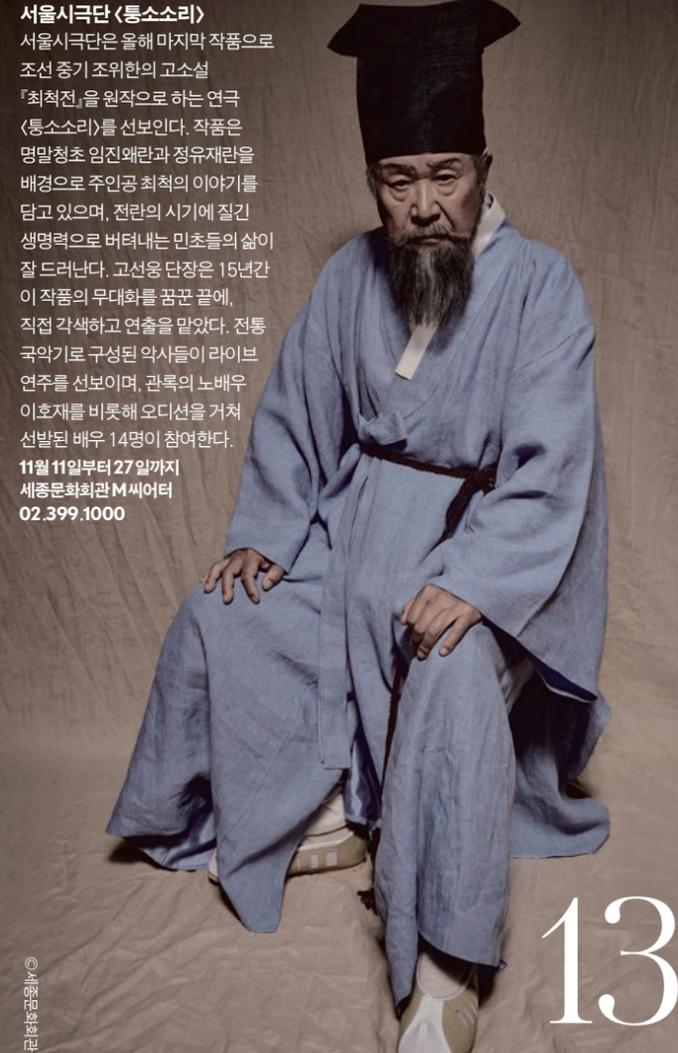
11월 1일과 2일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  
02.6358.5500



서울시극단 <통소소리>

서울시극단은 올해 마지막 작품으로 조선 중기 조위한의 고소설 『최척전』을 원작으로 하는 연극 <통소소리>를 선보인다. 작품은 명말청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주인공 최척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전란의 시기에 질긴 생명력으로 버텨내는 민초들의 삶이 잘 드러난다. 고선웅 단장은 15년간 이 작품의 무대화를 꿈꿔 왔는데, 직접 각색하고 연출을 맡았다. 전통 국악기로 구성된 악사들이 라이브 연주를 선보이며, 관록의 노배우 이호재를 비롯해 오디션 거쳐 선발된 배우 14명이 참여한다.

11월 11일부터 27일까지  
새중문화회관 M씨어터  
02.399.1000



© 새중문화회관

13

16

PLAY-UP 아카데미 '시선 끝의 연극'  
2025년 3월 새롭게 개관하는 서울연극창작센터(성북구 성북로 8)에서 개관 전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간 서울연극센터에서 진행해온 PLAY-UP 아카데미와 연계해 연극인과 만나고자 한 것. 연극 분야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전문가, 활발히 활동하는 연극인과 서로의 시각을 공유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아 '시선'이라는 키워드를 정하고, '대체할 수 없는 본인만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다. 11월 22일을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열리며, '번역가의 시선'(황석희), '배리어프리 버전 제작자의 시선'(강내영), '배우의 시선'(박해수), '무대 디자이너의 시선'(박상봉), '연출가의 시선'(신유정)으로 이어진다. 공연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연극 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기획전시  
예술의전당 앞 지하보도를 리모델링한 문화 플랫폼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에서는 오는 11월 현대 사회에서 잃어버린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회복하고, 관람객이 작품과 상호작용하며 내면을 돌아보는 경험을 주제로 전시를 선보인다. 지하에 조성된 갤러리 공간 구조의 '선'을 활용,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감정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안식처를 구현하고자 했다.

11월 19일부터 12월 13일까지 |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 02.3477.2074



빛의 거장 카라바조와 바로크의 얼굴들

바로크 시대의 천재 화가 카라바조와 당대를 품미한 거장들이 그려낸 회화를 아시아 최대 규모로 만나는 전시가 개막을 앞두고 있다. 카라바조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 강한 명암 대비를 주고 등장인물을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등 극적인 효과를 연출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 화가다.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여러 그림은 바로크 회화의 시작으로 기록되기도 한다. 카라바조의 작품 10점을 비롯해 명화 총 57점이 전시되며, 피렌체 우피치미술관의 작품 <그리스도의 체포>, <의심하는 성 토마스>, <이 뺨은 사람>이 처음 국내에 소개된다.

11월 9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3·4전시실  
02.909.4752



17



# 18

### 백인제가옥 복춘음악회

깊어지는 가을, 가회동 복춘에 위치한 100년 역사의 백인제가옥에서 가을음악회가 열린다. 백인제가옥은 서울시 민속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대표적인 근대 한옥으로, 시민 누구나 둘러볼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개방했다. 11월 2일에는 '명연주가, 마에스트리', 12월 7일에는 '송년 음악회'라는 부제를 두고 각 분야 명연주가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서울시 공공예약관리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고,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도 가능하다.

©서울시

### MMCA VR 전시 투어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 과천관에서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는 전시 <연결하는 집: 대안적 삶을 위한 건축>을 VR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초고화질 360도 카메라로 촬영하고 몰입형 시각 효과와 컴퓨터그래픽 기술을 적용해 모니터 너머 실제 전시실에 있는 것 같은 작품 감상 경험을 제공한다.

Cat-tagonal House  
Park Jihyeon+Cho Seonghak  
bus architecture  
2020 Yongin-si, Gyeonggi-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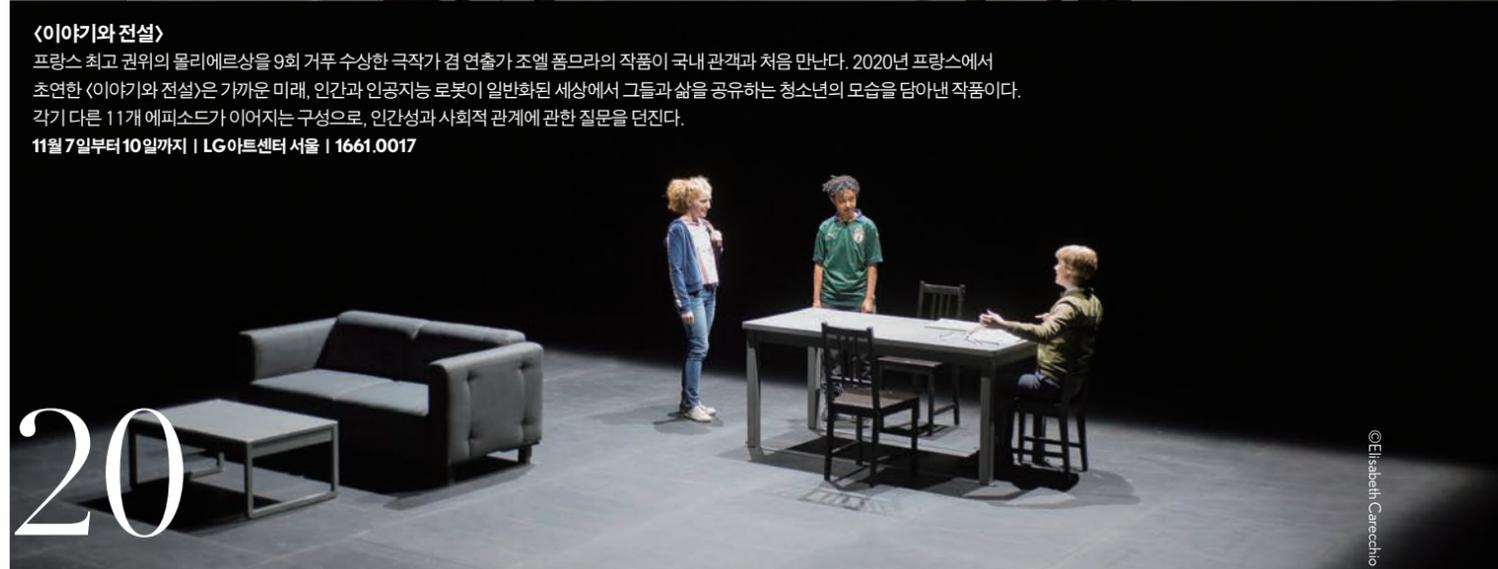
# 19



### <이야기와 전설>

프랑스 최고 권위의 물리에르상을 9회 거푸 수상한 극작가 겸 연출가 조엘 폼모라의 작품이 국내 관객과 처음 만난다. 2020년 프랑스에서 초연한 <이야기와 전설>은 가까운 미래,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이 일반화된 세상에서 그들과 삶을 공유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이다. 각기 다른 11개 에피소드가 이어지는 구성으로, 인간성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 LG아트센터 서울 | 1661.0017



©Elisabeth Carechio

# 20

# SCENE

### 이달, 주목할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 20

### 서울의 미래와 융합한 예술, Unfold X

- 10 2010, 그로부터 15년  
오래 묵힌 뉴미디어 예술,  
서울의 미래와 융합하다
- 12 2010-2024  
우리는 어디로  
서울문화재단 융합예술 15년
- 20 2024+에디토리얼  
예술과 기술의 바다로
- 22 2024+국내 작가  
세상의 변화에 귀 기울일 때
- 26 2024+해외 초청  
우리의 세계, 우리의 미래

- 32 예술가의 진심  
투명하고 솔직하게,  
안무하고 작곡하는 김재덕의 춤
- 38 예술인 아카이브  
이주원
- 40 예술인 아카이브  
손현선
- 42 페이퍼로그  
제휴협력팀 김성은  
누군가의 미래를 그리는 일
- 44 인사이드  
시작, 설렘 가득한 순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 개관페스티벌

- 46 인사이드  
공예 디자인 작가들의 '요즘 전시'  
신당창작아카데미 기획전시
- 48 트렌드  
런던의 한국 여성 미술가들  
양혜규·이미래의 전시
- 52 스크린 너머의 세상  
살아남은 사람에게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가
- 54 걷다가 마주친 춤  
무용수를 지우고 춤만 평가할 수 있을까
- 56 낯말은 새가 들고 낯말은 시가 춤는다  
익은 사람은 읽은 사람—익다

- 58 서울, 문화가 뿌리내린 도시  
장단의 고수, 판소리고법
- 60 예술의 숨결이 공간에 깃들 때  
도심에서 만나는 거짓말 같은 시간
- 62 컨트리뷰터



### COVER STORY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4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리는 언폴드엑스  
2024. 테크놀로지가 만드는 새로운  
시공간의 영역에서 과거·현재·미래가  
연결되며, 마이크로 생태계에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을 작품을 통해 추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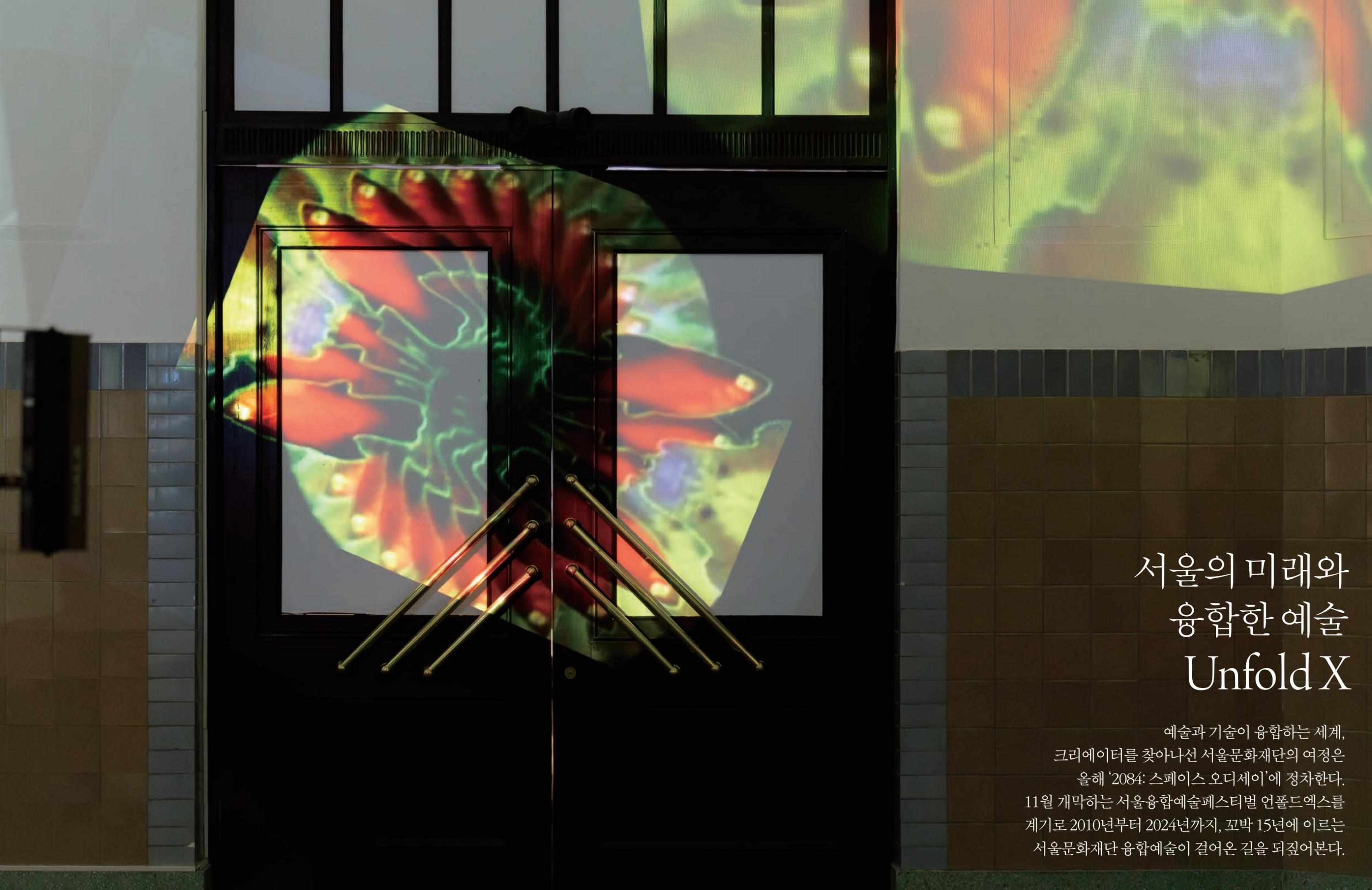
###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안미영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인쇄·제작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4년 10월 31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 COLUMN

# ASSOCIATED

# FOCUS



# 서울의 미래와 융합한 예술 Unfold X

예술과 기술이 융합하는 세계,  
크리에이터를 찾아나선 서울문화재단의 여정은  
올해 '2084: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정착한다.  
11월 개막하는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를  
계기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꼬박 15년에 이르는  
서울문화재단 융합예술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본다.

# 오래 묵힌 뉴미디어 예술, 서울의 미래와 융합하다

서울은 분명 15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융합예술의 맛집이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이 선보이는 예술을 맛보기 위해 긴 여행을 감수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그러한 미래를 꿈꿔봐도 좋지 않을까?



## “융합예술은 서울이 잘하지~!”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흑백요리사>는 미술랭 가이드에서 세계의 별을 부여받은, 일명 '3스타' 레스토랑의 스타 셰프를 심사위원으로 내세우며 참가자들의 다양한 미식을 평가하는 서바이벌 요리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다양한 음식은 심사위원의 날카롭고 섬세한 맛의 기준에 의해 선별됐고, 시청자들은 지원자의 환희와 좌절, 노력과 실패의 과정을 함께하며 호평 속에 종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소위 '맛집'이라고 이름난 다수의 레스토랑·음식점 셰프가 지원해 더욱 화제가 됐다. 서울문화재단의 융합예술에 관한 글에서 뜻밖의 요리 프로그램을 언급하는 이유는, 전 세계의 문화예술 지형도에서도 우리가 '맛집'이라고 명명하듯 특정 예술을 대표하는 상징적 도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역시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도시 중 하나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수도 서울을 향한 궁금증은 K-팝을 비롯한 대중문화의 힘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서울문화재단은 대중예술 외에도 폭넓은 문화예술의 지형을 형성하고자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드라마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로 아시아 중심의 시장을 구축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반의 시기를 '한류 1.0'이라고 가정해보면, 이후 K-팝 열풍을 통해 미국과 유럽으로 지역적 확산을 이뤄낸 2010년대의 시기를 '한류 2.0', 그리고 그러한 흐름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최근의 '한류 3.0' 시기에 이르기까지,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국내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지속됐다.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는 '융합'이라는 화두를 통해 한류 콘텐츠의 지평을 더욱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상황이다. 서울문화재단은 다양한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견인해왔는데, 다양한 부처와 융합예술 및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수행하는 동시에 대중에게도 융합적 문화예술 콘텐츠를 전시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러한 시도 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언폴드엑스Unfold X'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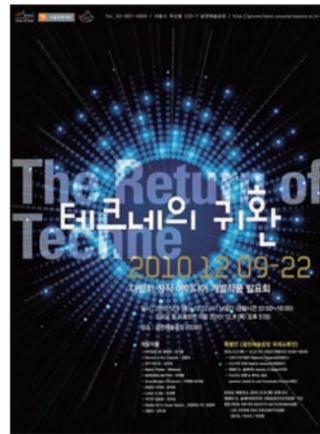
'언폴드엑스'는 무엇인가를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지닌 의미처럼 새로운 융합예술을 선보이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적 행사인 동시에 플랫폼 이름이기도 하다. 이는 동시대 문화예술이 최근의 과학 기술적 상황,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이슈와 예민하게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수많은 도시는 이러한 진보적 예술의 양태를 지원하고 발굴하는 실험실 혹은 페스티벌 같은 문화적 장을 구축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전 세계의 예술 행보를 이끄는 문화적 선구자의 위치를 점유하기 위함이자 예술의 동시대성을 해당 도시의 정체성으로 흡수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서울시는 융합예술이라는 키워드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흡수하며 자신의 예술적 역동성을 담보해왔다. 과학기술 및 예술을 융합하고자 시도하는 창·제작자들을 지원하며 그들과 함께 새로운 예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결과물의 일부를 세상에 내어놓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위이자 과정이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의심 섞인 다수의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현재의 '언폴드엑스'가 2010년 '다빈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해 2014년, '다빈치 크리에이티브'를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하기까지 행사의 성격과 이름을 바꿔온 지난한 역사를 되돌아보면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의 정체성 변화는 어쩌면 필연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나아가 급변하는 문화예술의 흐름을 상기해볼 때 어쩌면 이러한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새로운 융합적 아이디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험 플랫폼인 '다빈치 아이디어'가 좀 더 다층적인 수용자에게 전달되도록 프로그램을 확장한 '다빈치 크리에이티브'로 변화하며 10년 동안 다양한 실험을 통해 융합예술의 가능성을 지켜봐왔다면,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미지의 영역을 '탐구explore'하고 감각을 '확장expand'하며 새로운 예술적 '체험experience'을 생성하는 상징적 문자 'X'로부터 표상하고자 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시도는 단순한 변화라기보다는 일종의 진화다.

앞서 요리 프로그램의 비유로 돌아가보자. <흑백요리사>에서도 한국의 '장'을 주제로 새로운 요리를 선보인 바 있는데, 서울문화재단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융합예술, 혹은 뉴미디어 예술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15년 이상 정성스럽게 담가온 셈이다. 오래 묵혀온 품질 좋은 장이 맛집의 보증수표라면, 서울시는 분명 15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융합예술의 맛집이다. 그리고 '언폴드엑스'는 서울시·서울문화재단의 대표 매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대단한 '미술랭 3스타'라는 표식의 의미는 해당 레스토랑을 방문하기 위해 긴 여행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음식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이 선보이는 예술을 맛보기 위해 긴 여행을 감수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그러한 미래를 꿈꿔봐도 좋지 않을까.

# 우리는 어디로 서울문화재단 융합예술 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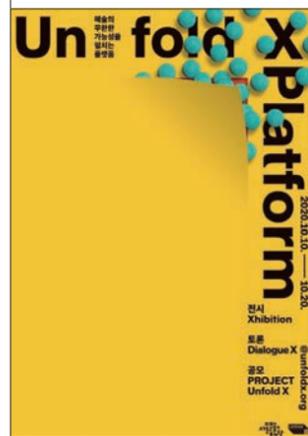
예술가인 동시에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크리에이터를 찾아나선 여정은 융합의 시대 미지의 'X'에 다다랐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문화재단 융합예술이 걸어온 길을 빠르게 훑었다.



**2010**  
다빈치 창작 아이디어 개발작품 발표회  
12월 9일부터 22일까지  
금천예술공장 PS 333



**2015**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9월 3일부터 30일까지  
금천예술공장



**2020**  
언폴드엑스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블루스퀘어 네모



**2011**  
다빈치 아이디어 전시  
11월 3일부터 22일까지  
금천예술공장



**2016**  
다빈치 아이디어 마켓  
9월 28일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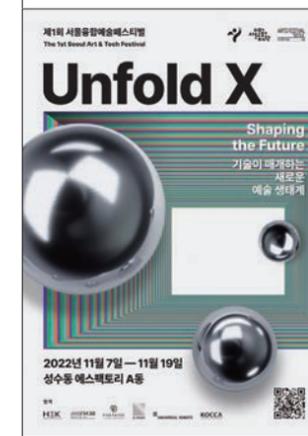
**2021**  
언폴드엑스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뮤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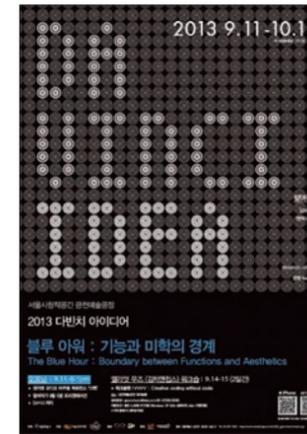
**2012**  
다빈치 아이디어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금천예술공장



**2017**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금천예술공장



**2022**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11월 7일부터 19일까지  
성수동 에스팩토리 A동



**2013**  
다빈치 아이디어  
9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금천예술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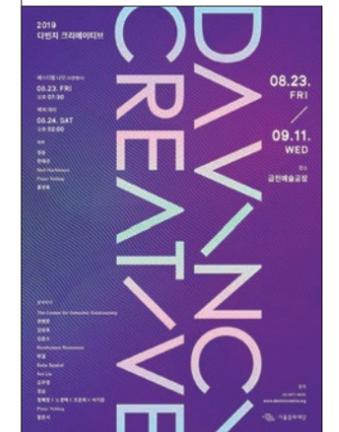
**2018**  
다빈치 랩 라이브  
12월 8일  
금천예술공장 참고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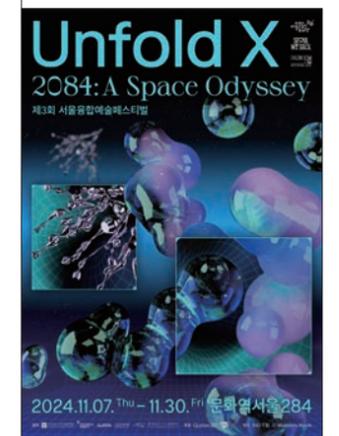
**2023**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11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문화역서울284 본관



**2014**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9월 3일부터 10월 17일까지  
금천예술공장



**2019**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금천예술공장



**2024**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문화역서울284

## ‘테크네’로부터 ‘스페이스 오디세이’까지 최신 예술로 비춘 시대 담론

### 2010

#### 테크네의 귀환

시작은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테크놀로지 기반 창작아이디어의 개발 성과를 선보이는 전시였다. 지식 컨버전스, 장르 간 융합, 통섭, 다분야 작업, 초분야적 문화라는 통합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우리 시대가 ‘테크네Techné’의 본원이 회복되는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매체가 탄생하면서 테크놀로지와 예술의 관계는 동시대의 기준으로 새롭게 가시화되고 있다. ‘테크네의 귀환’이라 주제를 정한 다빈치 창작아이디어 개발작품 발표회는 테크놀로지와 뉴미디어를 이용한 새로운 예술적 시도가 사용자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미래에 어떠한 트렌드로 발전할지, 인간과 미디어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등 다양한 전망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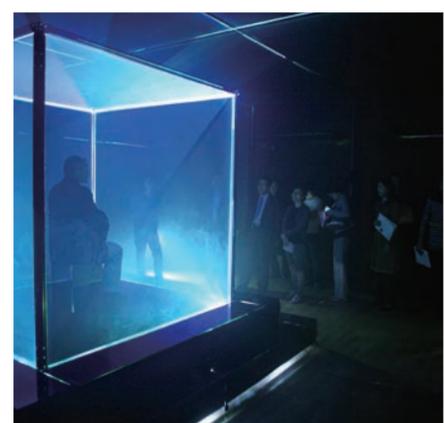
### 2011

임의적 접근이 가능한 블랙박스  
독일 철학자이자 미디어 이론가 노르베르트

볼츠Norbert Bolz는 오늘날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매일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어떠한 원리로 작동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기술 매체를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불렀다. 사용자의 다채로운 수용 형태를 유발하는 다빈치 아이디어의 흥미로운 실험은 신기술의 치밀한 구성과 설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작품 설계에 응집된, 복잡한 디지털 응용 프로그램을 비롯한 첨단 공학기술은 관객 또는 사용자에게 해독이 불가능한 ‘블랙박스’에 불과하지 않나. 두 번째 해를 맞이한 다빈치 아이디어 전시는 특별한 지식 없이 작품과 직관적으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관객의 존재를 ‘임의적’ 생산자로 바라봤다.



### 2012



내일의 전야前夜:  
산업 그리고 미디어아트  
세 번째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는 서울이라는 복잡한 문화적 레이어를 지닌 도시가 미디어아트라는 장르의 정체성과 마주하던 때를 반추했다. 중공업지역에서 IT 산업으로 용도 전이를 겪고 있는 사이 서울시 창작공간으로 재탄생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금천예술공장의 지역적 정체성에 주목한 것.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기술 기반 창작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전시와 자문, 사업화를 거쳐 궁극적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보유한 첨단 기술력과 예술 아이디어의 결합을 목표로 했다. ‘산업’과 ‘미디어아트’의 강조는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가 여타 미디어아트 지원사업과 명확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 2013

블루아워: 기능과미학의 경계  
‘블루아워Blue Hour’는 해 질 무렵 혹은 새벽녘, 푸르스름하게 번져오는 아침도 낮도 밤도 아닌 시간대를 일컫는 표현이다.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지금의 한편, 다가오는 미래의 아름다움과 기대를 동시에 함축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이자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창의적 아이디어의 예술가를 발굴하고자 시작한 사업이 기술과 예술, 기능과미학의 ‘블루아워’에 위치해 있다고 평가했다.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는 예술과 기술이라는 이질적인 분야의 경계와 혼재 속에서 진행되는 창작 미학을 추구하는 예술가, 기능과 수익을 추구하는 엔지니어와 산업체, 이들을 매개하는 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협업을 전제한다. 또한 이 시기 사업 초기에 발표된 아이디어가 국내외 저명한 전시와 저널을 통해 재조명되는 쾌거를 누렸다.



### 2014

렉시컬 갭:  
미디어아트의 비언어적 해석  
2010년 출발한 이래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 인간의 삶과 산업에 개입하는 과정을 다루는 작품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지난 4년간의 경험과 발견을 토대로 ‘다빈치 크리에이티브’라는

커다란 이름 아래 좀더 밀도 있는 페스티벌 규모로 확대했다. ‘렉시컬 갭Lexical Gap’은 언어가 주는 거리, 간격, 틈으로 해석된다. 법칙이 없는 예술 공간 안에서 존재 형식이 상이한 작품을 초대, 언어적 해석이 아닌 감각적 해석으로 미디어아트를 감상하도록 제안한다. 또 예술사 안에서의 전통적 비평이나 미술관에서 벌어지는 감상 방법이 아니라, 쇼윈도, 광고, 거리 패션, 영화에서 만나는 이미지와 메시지처럼 관객이 좀더 감각적으로 작품을 해석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미디어아트의 비언어적 해석’이란 부제목을 덧붙였다.



### 2015

센스 오브 WONDER  
다빈치 크리에이티브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본에 충실한 내면으로부터의 호기심a sense of wonder에서 그 출발점을 찾으려고 했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뇌파EEG, 사운드 인터페이스, 관객 참여형 미디어 스킨, 키네틱 라이트 등 호기심 가득한 젊은 작가들의 다양한 실험에 주목하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감정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퍼포먼스, 로보틱스, 디지털 아키텍처, 알고리즘아트 등 인간과 기계, 가상과 현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놀라움a sense of wonder을 선사해온 국내외 미디어 아티스트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 2016

다빈치 아이디어 마켓  
2016년에는 미디어아트의 영역 확장을 도모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의 기업과 산업체, 기관 관계자를 초청했다. 9월 28일 단 하루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열린 본 행사에서는 ‘다빈치 아이디어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미디어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쇼케이스 겸 네트워킹 파티가 열렸다. 참여 작가가 자유롭게 구상한 아이디어를 소개·발표하는 토크가 진행됐고, 이후에는 미디어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 2017

언캐니 밸리?  
로봇을 비롯한 인간이 아닌 존재를 바라볼 때 인간과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호감도가 높아지지만,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오히려 불쾌감을 느낀다는 이론인 ‘언캐니 밸리Uncanny Valley’(불쾌한 골짜기)를 주제로 삼아 예술과 테크놀로지 분야 크리에이터들이 그 너머의



평범하지 않은 징후를 소개했다.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증강·가상현실, 합성 바이올로지,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등이 발달하면서 재조명된 언캐니 밸리의 마지막 지점에서 만난 다빈치 크리에이티브는 어떠한 이야기를 건넸을까. 증강현실을 넘어 인간의 몸과 정신 자체가 테크놀로지에 의해 증강되는 근미래를 준비하고자 인간다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열린 통로를 만들고자 했다.

### 2018

예술+기술+생명  
예술과 기술, 생명을 주제로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에 최종 선정된 작가 8명의 2019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프리뷰 무대인 ‘다빈치 랩 라이브’가 열렸다. 21세기 테크놀로지 아트의 이슈와 담론을 공유하는 리서치 프로젝트로, 합성생물과 바이오 및 로보틱스 미디어, 인공지능과 인공생명,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작업 과정, 내년 전시 계획이 공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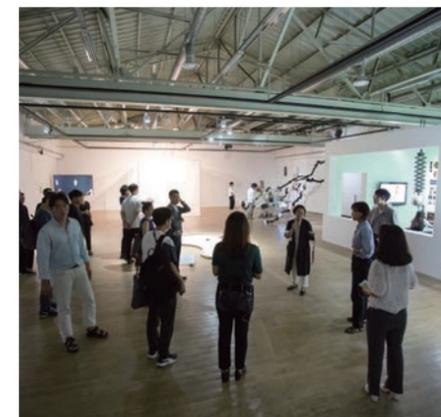


### 2019

리빙 라이프  
세계는 21세기를 4차 산업혁명 혹은 호모 헨드레드 시대로 전망한다. 이에 100세 장수가 보편화된 시대를 예측하며 인간과 예술을 바라보고자 했다. 실제로 융합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간의 증강휴먼, 즉 사이보그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존재의 권리를 도모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사이보그는 더 이상 SF 영화에 등장하는 초인적 기계 인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에 스며든 인간이다. 나아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사이보그에게도 일정한 권리가 필요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100세 시대에 생명의 가치와 존엄의 근거는 어디에서 기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의와 공정함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다빈치 크리에이티브가 그간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예술을 선보였다면, 이때는 생명을 염두에 두고 시대와 사회, 인간을 통찰·성찰하는 시대정신을 짚어봤다.



## 2020

**X의 의미와 가능성**  
 지난 10년간 경계 없는 혁신적 예술 영역의 확장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다빈치 크리에이티브가 융합예술 플랫폼 '언폴드엑스Unfold X'로 거듭났다. 융합을 화두로 학제 간 경계를 허물고 하나로 합쳐진 세상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것. 융합예술 플랫폼을 구축해 공동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창작자가 융합예술이라는 정체성에 접근하는 방식과 기술 수용의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기술 기반 예술 활동의 성과와 가능성을 확인, 공유하고자 했다. 미지수, 미지의 영역을 상징하는 'X'를 통해 정의되지 않은 것들을 탐구explore·확장expand·체험experience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전시《Xhibition 2010-2020》을 통해 융합예술 10년의 변화와 현재의 모습을 재조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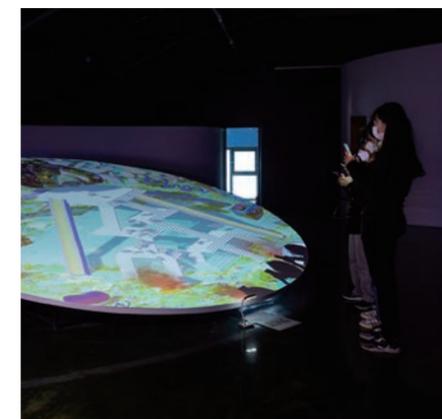
## 2021

**디지털 스토리텔러스**  
 서울문화재단 융합예술 창·제작 지원사업 선정 작가 6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초청 작가를 한자리에 모았다. 디지털아트의 귀감이 될 수 있는 해외 작가 3명의 작품과 기술 관련 기업으로 XR 기술팀을 운영하는 LG유플러스가 참여해 '언폴드엑스'라는 새 이름에 걸맞은 전시 구성을 선보였다. 가속화되는 기술혁명 사회에서 예술가라는 직업은 사라지게 될까? 아니, 오히려 첨단 과학기술 시대의 과도한 기계화로 인해 획일화·동일화되는 일상의 지루함에서 우리를 구출할 능력자로 남을지도 모른다.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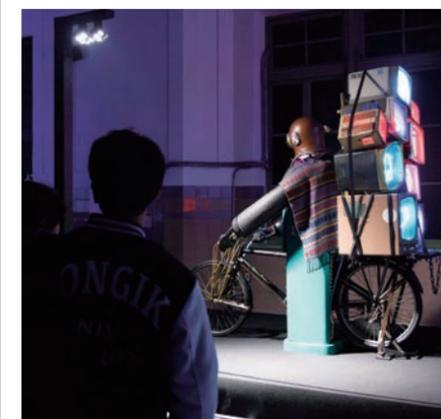
**Shaping the Future: 기술이 매개하는 새로운 예술 생태계**  
 기술의 변화와 발전은 매우 빠르게 일어났다. 정보화 시대의 기술은 예술을 포함한 21세기형 흥미로운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며, 기술 환경과 인간 사이의 다양한 공생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해 언폴드엑스는 인간이 기술과 융합하고 예술이 기술과 공생하며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해 그 관계를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기술이 매개하는 환경에 둘러싸인 예술가는 어떻게 이와 공존하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전시는 다양한 매개체와 기술의 관계에서 오는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함께 그려보기를 제안한다.

## 2023

**달로 가는 정거장**  
 근현대사의 주요한 교류 관문이었던 서울역(문화역서울284)을 무대로 서울융합예술 페스티벌 언폴드엑스를 펼쳤다. '달로 가는 정거장'은 1952년 문을 연 서울역사에서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방법론을 질의하는 동시대 예술가와 국내의 기관을 연결한다. 기술은 언제나 다른 모습을 하고 등장하며, 2023년 인류를 둘러싼 새로운 기술은 인간의 여행지를 시공을 뛰어넘어 가상의 공간으로 확장하게 한다. 페스티벌은 기술이 도래하는 새로운 시간의 감각, 공동체의 감각, 그리고 미래 세대와 기술의 전망을 거시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 2024

**2084: 스페이스 오디세이**  
 10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 애환의 삶을 실어 나른 서울역사가 미래의 시선으로 현재를 돌아보는 타임캡슐이 된다. 백남준이 1984년 선보인 <굿모닝 미스터 오웰>로부터 100년 후를 참조하는 주제 '2084: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작가들의 자유로운 창작, 그리고 이들의 손에 쥐어진 도구(테크놀로지)와 이로써 이뤄낼 작품을 질문하고 상상해본다.

15년  
융합예술 흐름과  
함께한  
168명 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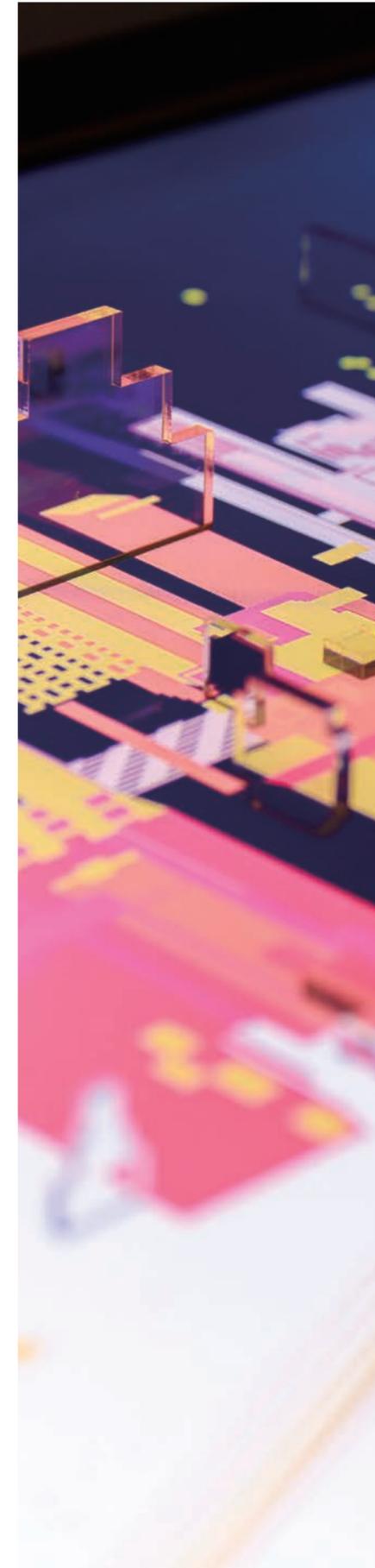


예술감독·큐레이터  
손미미<sup>14</sup>  
최두은<sup>15-17</sup>  
전혜현<sup>19</sup>  
최진희<sup>21</sup>  
이승아<sup>22</sup>  
현시원<sup>23</sup>  
박소현<sup>24</sup>

참여 예술가·기관  
가브리엘 마산<sup>24</sup>  
강기동<sup>10</sup>  
강이연<sup>12-20</sup>  
권병준<sup>18-19-20</sup>  
권하람·배준형·엄가람·이설희<sup>22</sup>  
권하운(파라다이스문화재단)<sup>21</sup>  
글렌체크<sup>14</sup>  
김나희<sup>21</sup>  
김동조<sup>10</sup>  
김민아<sup>21</sup>  
김병규<sup>11-12-14-16</sup>  
김성욱<sup>18-19</sup>  
김아영<sup>15</sup>  
김영희·조예진<sup>12</sup>  
김은솔·안성석·양종석<sup>15</sup>  
김은진<sup>17</sup>  
김정환<sup>14</sup>  
김준수<sup>18-19</sup>  
김진희<sup>10</sup>  
김치앤칩스<sup>13-14-16-23</sup>  
김태은<sup>22</sup>  
김현석<sup>24</sup>  
김호남·엄기순·정해진<sup>22</sup>  
김호남<sup>24</sup>  
김호빈<sup>23</sup>  
노바장<sup>12</sup>  
노진아<sup>22</sup>  
놀이<sup>17</sup>  
다다마스<sup>14</sup>  
다이토 마나베<sup>22</sup>  
닥드정<sup>16-17</sup>  
데이비드 로커비<sup>24</sup>  
데이비드 오레일리<sup>22</sup>  
디지털 히피단<sup>15-16</sup>  
랩[오]<sup>15</sup>  
랩526<sup>12</sup>  
로그<sup>22</sup>  
로랑 그라스<sup>21</sup>  
로봇랩<sup>24</sup>  
료이치 쿠로카와<sup>22</sup>  
루이 필립 데메르<sup>15</sup>  
루이 필립 롱도<sup>23</sup>  
룸돈<sup>23</sup>  
룸앤테일<sup>22</sup>  
류필립<sup>23</sup>  
리비 히나<sup>24</sup>  
리암 영<sup>24</sup>



메리 프랭크<sup>14</sup>  
메모 악텐<sup>24</sup>  
모나드(송해민, Rimeo Lee)<sup>21</sup>  
모리스 베나운<sup>15</sup>  
모리츠 사이먼 가이스트<sup>22</sup>  
미셸 브레&에드몽 쿠쇼<sup>23</sup>  
미야지마 타츠오<sup>21</sup>  
미카 스킷<sup>14</sup>  
바이오미디어<sup>22</sup>  
박경근<sup>24</sup>  
박소영<sup>23</sup>  
박승순<sup>15-20</sup>  
박월<sup>11-18-19</sup>  
박재완·이재성<sup>15</sup>  
박재완<sup>16</sup>  
배성훈<sup>11</sup>  
백남준<sup>23</sup>  
벤 크로이크닛<sup>14</sup>  
빈센트 모리셋<sup>24</sup>  
빌 본&루이 필립 데메르<sup>17</sup>  
사샤 스파찰<sup>19</sup>  
사일로랩<sup>23</sup>  
상희<sup>22-23</sup>  
서수진&카를로 코린스키<sup>23</sup>  
서울오픈미디어<sup>21</sup>  
송준봉+배재혁<sup>14</sup>  
수투<sup>24</sup>  
신승백·김용훈<sup>14-16-20</sup>  
알랭 티보<sup>17-24</sup>  
알랭 티보·매튜 비더만<sup>6</sup>  
알렉스 베르하스트<sup>23</sup>  
애니 리우<sup>19</sup>  
양민하×올림푸스<sup>16</sup>  
양민하<sup>15-17-20</sup>  
양숙현<sup>14-16-24</sup>  
엔메이크랩<sup>21</sup>  
엄재환<sup>13</sup>  
에두아르도 카츠<sup>17</sup>  
엔엑스유엑스<sup>13</sup>  
엠마 쿤<sup>14</sup>  
엠에스지<sup>14</sup>  
여진욱<sup>11</sup>  
염인화<sup>24</sup>  
오주영<sup>18-19-20</sup>  
오픈<sup>13</sup>  
올리 소렌슨<sup>23</sup>  
우박 스튜디오<sup>22</sup>  
우주+림희영<sup>15-17</sup>  
웨이이<sup>22</sup>  
유두원·김치호<sup>12</sup>  
유화수<sup>21-24</sup>  
윤석희·민찬욱·유동휘<sup>12</sup>  
윤석희<sup>10</sup>  
윤제호<sup>22</sup>  
이리스 취 샤오위·마크 리·서빈 사레미<sup>22</sup>  
이성은·이승민<sup>17</sup>  
이인강<sup>22</sup>



이재형·박정민<sup>17</sup>  
이재형<sup>10-20</sup>  
이진<sup>24</sup>  
이피엠<sup>13</sup>  
임형섭<sup>23</sup>  
입육위(국립아시아문화전당)<sup>21</sup>  
장성욱<sup>10</sup>  
장윤영<sup>23</sup>  
장지연<sup>23</sup>  
전파상(양숙현+박월+나대로)<sup>10</sup>  
정보람<sup>14</sup>  
정승<sup>18-19</sup>  
정자영<sup>13-14</sup>  
정정주<sup>10</sup>  
정혜영×노경택×조은희<sup>18</sup>  
정혜정×노경택×조은희×서기준<sup>19</sup>  
제이에프 말루앵<sup>17</sup>  
조니 르메르시에+줄리엣 비바스<sup>14</sup>  
조영주<sup>22</sup>  
지몬<sup>14</sup>  
최두은<sup>14</sup>  
최수경<sup>10</sup>  
최수환+이태한<sup>10</sup>  
최영환<sup>15</sup>  
최인경<sup>11-13</sup>  
추미림<sup>23</sup>  
코드블루<sup>15</sup>  
크로스디자인 랩<sup>11</sup>  
키라라<sup>17</sup>  
탈 다니노<sup>17</sup>  
태싯그룹<sup>11-16</sup>  
투 엔터<sup>24</sup>  
트로이카<sup>24</sup>  
트리스탄 솔츠<sup>23</sup>  
팀랩<sup>13</sup>  
팀보이드<sup>14-15-16-17-20</sup>  
페랑<sup>23</sup>  
퓨어폼·알랭 티보&안 브렐류<sup>17</sup>  
프링커펀리아<sup>22</sup>  
피나르 올다스<sup>19</sup>  
하이브<sup>11-12-14-16</sup>  
하이브리드 미디어 랩<sup>13-14</sup>  
하카손<sup>24</sup>  
한윤정·한병준<sup>12-14</sup>  
한재석<sup>24</sup>  
한희+김근호<sup>11</sup>  
함준서<sup>18-19</sup>  
허먼 콜겐<sup>14-15-17-23</sup>  
후니다 킴<sup>12-14-24</sup>  
히치하이커<sup>17</sup>  
AATB<sup>22</sup>  
Between(김영은+남상훈)<sup>10</sup>  
K'ARTS AT LAB×LG U+<sup>21</sup>  
Nonhuman Nonsense<sup>19</sup>  
Octamin<sup>11</sup>  
The Center for Genomic Gastronomy<sup>19</sup>  
Universal Everything<sup>21</sup>

# 예술과 기술의 바다로

전시 제목의 '2084'는 백남준이 1984년 선보인 <굿모닝 미스터 오웰>의 100년 후를 참조한다.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작가들은 자유로운 창작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을까?

“이 행성을 지구<sup>earth</sup>(땅)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부적절하다. 이곳은 분명히 ‘바다’다.”

아서 C. 클라크 Arthur C. Clarke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Unfold X 2024 <2084: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가까운 미래인 2084년을 배경으로 삼아 현시대를 고고학적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테크놀로지가 만드는 새로운 시공간의 영역에서 과거·현재·미래가 연결되며, 마이크로 생태계에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을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추적한다. 이 전시는 미래 세대, 혹은 외계의 존재에게 현재를 이야기로 전하는 서사시와도 같다. 근미래에 지구를 방문한 외계의 생명체가 작가들의 작품으로 2024년을 조합하고 추측한다면 현재의 단면은 어떤 모습일까?

10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 애환 등 삶의 이야기를 실어 나른 구서술역사는 미래의 시선으로 현재를 돌아보는 타임캡슐로 변모한다. 전시 작품은 인공지능<sup>AI</sup>, 빅데이터, 머신러닝, VR·AR·XR, 로봇, 양자컴퓨팅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미래 지향적 작품이면서 지극히 현재를 반영하고, 역사를 참조하기도 한다. 오랜 시간 자연을 점령해온 인간 중심의 사고를 반성하고, 기후 변화, 동물·자연·비인간 중심으로 세계의 인식을 확장하며, 발을 딛고 서 있던 땅을 벗어나 심해나 우주, 양자역학 등 우리의 인지와 지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상상하고 구성하는 경향도 보인다.

전시는 ‘고래의 노래’, ‘시공의 함선’, ‘미래의 유적’이라는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이는 작가들의 작품으로부터 시작되는 서사의 흐름이자, 기술의 진보와 시대의 변화라는 급격한 바람에 떠밀려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문화역사물284 공간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이는 뚜렷한 구분이 아닌 느슨한 은유로, 작품은 이 갈래를 넘나든다.

#1. ‘고래의 노래’는 소리<sup>sound</sup>를 주요 매체로 사용해 파장의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경험을 생성하는 작품을 모았다. 고래는 지구상의 가장 거대한 생명체로서, 심해와 수표면을 수직으로 오가며 양분을 순환하고, 하나로 연결된 바닷속 전 지구를 헤엄치고 누비며,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이야기를 노래로 전달하는—수직·수평적으로 시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징적 존재다. 작가들은 바람·하늘·나무·물 등 자연의 법칙과 기술의 결합을 시도한다. 자연을 지배하고자 한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며, 인공물과 생명체 사이의 간극이 줄어든 기묘한 중간자를 생성하기도 한다. 시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심해 속 고래처럼, 고대와 현대, 인공과 자연, 삶과 죽음, 인간과 비인간의 간극을 잇는 작업을 선보인다.

#2. ‘시공의 함선’은 심해, 우주,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견고한 땅과 물질의 세계를 넘어 유동적인 현실 속에서 경계를 실험하는 작품들이다. 함선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베셀<sup>vessel</sup>’은 바다 위의 선박, 부유하는 플랫폼, 바지선처럼 유동적인 것 위에 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우주로 의미를 확장해 우주선이나 우주 정거장을 뜻하기도 한다. 작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가능태의 세계를 구상해 또 다른 현실을 창조하며, 심해와 우주로 시선을 돌리며 상상력의 한계를 넓힌다. 또 인공지능이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로 구성된 현실과 같은 이미지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지각하고 인식하는 세계만이 진실이 아님을, 진실은 유동적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킨다.

#3. ‘미래의 유적’은 미래 세대가 외계의 존재가 현재를 파헤친다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상상하며 작품을 통해 그 흔적을 추적한다. 작가들은 과거의 역사나 현재를 작품에 끌어들이며 급진적으로 새로운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가기도 한다. 인류에 의해 지질적 차원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면에서 우리 시대를 ‘인류세’라고 말하는데, 기술에 의해 지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면에서 ‘기술세’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인류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급진적으로 지능이 발전했고, 문화가 발전했다. 이러한 인간-도구-기술-비인간 존재의 관계로 이뤄지는 기술·감각·사회적 맥락을 작품을 통해 살펴본다.

<2084: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2084’는 백남준이 1984년 선보인 <굿모닝 미스터 오웰>의 100년 후를 참조한다. 백남준은 당시 가장 첨단 기술인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 주요 방송국을 연결하는 국제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는 전 세계 주요 도시와 인사를 연결하며 전 세계가 통합된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퍼포먼스이자 한편의 굿이었다. 또 근대화의 신호탄이던 서울역(당시 경성역)이 문을 열던 때와 비슷한 시기, 1924년 문화계에서는 고향용이라는 젊은 작가가 동아일보를 통해 ‘다다이즘’을 선언하며 한국 모더니즘의 새 시대를 열었다. 이는 이전 문화와는 급진적으로 다른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1924-1984-2024-2084, 이 시간대를 엮으며 문화역사물284 내 시간의 기차는 달린다. 1924년 식민지 시대의 암흑 속에 희미하게 새 시대를 여는 빛이 비쳤다면, 2024년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작가들은 자유로운 창작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을까? 여러 시간과 공간, 문화와 역사가 이곳에서 점핑과 필름을 반복하며 새로운 지층을 구성한다. 도구를 사용하며 발전해온 인류의 역사에서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도구(테크놀로지)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을 이루어낼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질문하고 상상해본다.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4

<2084: 스페이스 오디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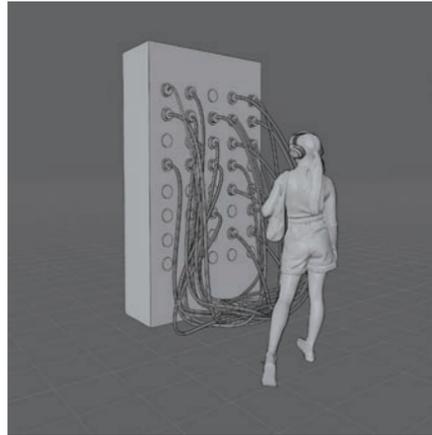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월요일 휴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 문화역사물284

# 세상의 변화에 귀 기울일 때

여기, 융합예술 창·제작지원 선정 작가 10명을 소개한다. 세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귀 기울이는 이들의 관점은 현시대의 예술을 오롯이 보여주고 있다.

**김현석**  
미디어와 테크놀로지의 비선형적 계보에 주목하며, 동시대 시각문화에서 발견되는 사용자의 재현적 특성과 기술 메커니즘의 관계를 비평적인 맥락에 위치시키는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젝트 <문어는 스크린><sup>2024</sup>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인간상을 탐구하며, 기술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의 양가적 모습을 문어의 의태에 빗대고, 이를 인류의 미래상으로 제시한다. 이 작품은 관람객이 실시간으로 소켓을 조종하고 그 결과를 이미지 데이터로 송출하는 구조를 통해 인간과 인공지능 간 협업과 공진화를 상상한다. 초기 컴퓨터가 기계가 아닌 소켓을 옮겨 계산을 수행하는 여성 노동자를 지칭한 것처럼, 관객은 소켓을 직접 움직여 물리적 코딩을 수행하며 문어와 인간이 결합하는 주술적 타임라인을 구축한다.



```

9. 케이프타운 : ===== 428 ms
총 지연시간 : 5292 ms
0. 서울 : == 33 ms
1. 도쿄 : ===== 127 ms
2. 싱가포르 : ===== 167 ms
3. 시드니 : ===== 155 ms
4. 캘리포니아 : ===== 151 ms
5. 버지니아 : ===== 194 ms
6. 아일랜드 : ===== 271 ms
7. 상파울루 : ===== 386 ms
8. 아랍에미리트 : ===== 298 ms
9. 케이프타운 : ===== 428 ms

총 지연시간 : 2150 ms
0. 서울 : == 8 ms
1. 도쿄 : == 41 ms
2. 싱가포르 : ===== 106 ms
3. 시드니 : ===== 156 ms
4. 캘리포니아 : ===== 151 ms
5. 버지니아 : ===== 196 ms
6. 아일랜드 : =====
    
```

## 김호남

장치를 제작하고 소리와 물성 사이에서 하나의 맥락을 만드는 일에 집중한다. 장치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쓰임새를 제공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 요소다. 사운드 인터페이스로써 작가의 장치는 협업을 통해 확장되며, 연주 도구가 될 수도, 이미지와 소리를 연결하는 광학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전자 장치가 가진 매체적인 가능성을 포착하려 한다. 전자 장치에서 은폐된 회로의 기술을 공간을 통해 가시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로봇틱스와 키네틱 설치 및 사운드로 이뤄진 <해저 광케이블을 위한 에코챔버 시스템><sup>2024</sup>은 해저 광케이블에 주목해 인터넷 요청과 반응 사이의 짧은 시간 차를 에코핑echo ping으로 가시화한다. 실시간으로 송신된 핑이 돌아올 때마다 사운드와 영상이 시작되며, 물질적 웅성거림과 더듬거림을 드러낸다.

## 양숙현

회화와 인터랙션 디자인을 전공했으며, 기술 환경 안에서의 감각과 경험, 데이터와 물질의 상호작용, 기술적 오류의 창의적 활용 등을 주제로 작업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기술·인간·환경의 복잡한 관계를 생태계 관점에서 조명하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과 시스템의 변화에 주목한다. <OOX 2.0-지구물질인간존재도를 위한 어플리케이션><sup>2024</sup>은 전자<인간 물질론과 합성의 존재도>에서 이어지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한 사유를 담고 있다. 'OOX'란 '객체 지향의 XObject Oriented X'를 의미하며, 인과성과 개연성이 없는 임의의 차원을 뜻한다. 작품은 동양의 달력 주기를 활용해 인간의 식별 데이터로부터 관계성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페르소나가 시를 작성한 후 그것을 프롬프트로 활용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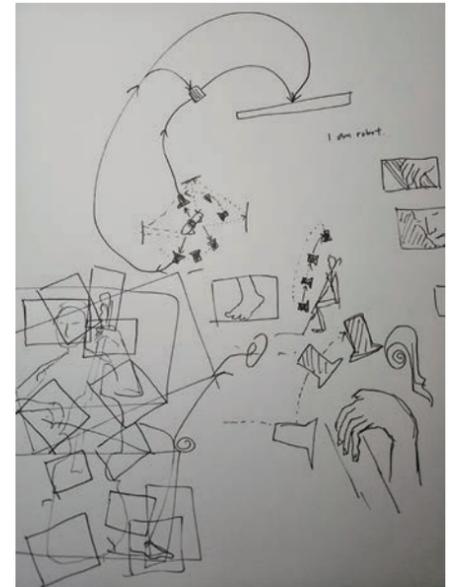


## 염인화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바이오브BIOVE의 창립자 겸 공학 연구자다. 작가로서 확장현실XR 및 AI 기술, 그리고 공연예술의 경계에서 '3D 퍼포머티브 장치-환경'을 창작하고 있다. 이 장치-환경은 다양한 (비)인간의 행동, 반응, 표현을 포함하고, 특히 (바이오-)식민주의, (생명)공학 중심적 체제와 그 역사에서 구축된 소수자들을 위한 무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관객-퍼포머의 수행성 개념, 관객-퍼포머와 장치-환경 간 상호수행성 개념을 탐구한다. 확장현실XR 기반의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솔라소닉 밴드><sup>2024</sup>는 기후 위기 시대에 태양이 떠 있는 한야의 공연을 이어가고자 희망하고, 관객을 기후 공동 행동으로 끌어들이고, 관객은 스크린 중앙에 마련된 '밴드 리더' 단상 위로 올라가 증강현실AR 기반의 '밴드 스탠드' 악보를 연주하며 가상현실VR로 구현된 5개의 기후 권역을 위한 순회공연의 리허설을 이끈다.

## 박경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무의식과 기술, 집단과 개인의 주체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작가의 영상·사진·설치 작품은 베를린국제영화제·뉴욕현대미술관·타이페이 비엔날레 등에서 전시·상영됐다. 베를린국제영화제 넷팩상을 받았고, 리움미술관 아트스펙트럼 작가상,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후원 작가 등 국내외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며 인정받고 있다. <피드백><sup>2024</sup>은 관객과 로봇 카메라 간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인식의 과정으로서 보는 행위를 탐구한다. AI 알고리즘을 사용해 기존 장비로는 구현할 수 없는 앵글로 인간 퍼포머의 모습을 촬영해 화면에 비추며, 거울 속 이미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기계와 기술, 인간의 시선이 교차하며 관객은 자신이 기계의 피드백 루프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 유화수

인간이 기술을 앞세워 다양하고도 고도화된 방식으로 주변 환경에 개입하고, 본질적인 변화를 끼치는 것에 주목한다. 기술이 장애 및 실패의 결과물을 대할 때 반응하는 관성적 태도와 주류와 정상<sup>정상</sup>만을 향하는 첨단 기술의 태생적 한계와 사회적 난제를 통해 기술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고민과 질문을 심화하고 있다. <에코 메트로 펠리스><sup>2024</sup> 연작은 자연, 환경 파괴, 기술 발전,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품이다. 작가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심어졌다 쉽게 제거되는 나무에서 영감을 얻어 작업을 시작했다. 빛나무·느티나무·조팝나무가 수목장을 위해, 은행나무와 플라타너스가 거리의 미관을 위해 심어지는 등 인간의 취향에 따라 조성되고 파괴되는 과정을 '불안정한 기념비'로 정의한다. 관객은 이를 통해 인간 중심의 환경 조성과 기술의 문제를 성찰하게 된다.



### 이진

컴퓨팅 시스템과 회로를 매체로 활용해 설치 미술과 인터랙티브 환경을 창작하는 뉴미디어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다. 작가는 질서와 혼돈 사이에 놓인 현상을 연구하며, 예상치 못한 요소를 포함한 작품을 만들어낸다. 독일·스위스·일본 등지의 페스티벌과 갤러리에 작품이 전시한 바 있다. <경계의 고리><sup>2023-24</sup>는 자연의 난류 현상에 인공적으로 개입하고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설치 작품이다. 작가는 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난류에 층류라는 인위적인 방향성을 부여하고, 이 공기의 흐름을 조각하고 가시화한다. 작품은 자연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시도와 그 한계를 드러내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공적인 흐름은 사라지고 자연의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을 반복한다.



### 하카손

인체 위를 덮는 피부와 그 위에 걸치는 옷의 물질성과 행위성을 중심으로 인체·사물·공간으로 확장되는 다층적 관계를 극 무대의 형식으로 선보여왔다. 작가가 친착해온 신체와 사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입고 걸치는 물리적 행위는 신체와 공간의 관계로 전이되며 점진적인 확장을 성취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웨어러블 테크놀로지와 플로팅 캡슐을 통해 인간 감각의 경계를 구현하는 <부유하는 피부><sup>2024</sup>를 선보인다.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는 단순히 인간 신체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체가 변화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작품은 기술이 이미 우리 신체의 일부로 통합돼 있으며, 플로팅 캡슐에 담긴 액체처럼 공간·기술, 그리고 인간 신체 간 유동적인 관계를 드러낸다.



### 한재석

스피커와 마이크 등 직접 수집하고 제작한 음향 장치를 사용해 조각과 설치, 사운드 퍼포먼스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음향 출력 장치와 소리의 성질을 탐구해온 작가의 창작은 전기 신호를 음파로 변환하는 장치, 스피커의 물리적 진동과 소리의 파동에 관한 연구에서 비롯한다. 입력과 출력, 수신과 발신 등 의사소통의 형태로써 평소 지각하기 어려운 피드백 고리를 빛과 소리, 진동과 공명으로 공간에 구현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영소닉><sup>2024</sup>은 영소<sup>nidification</sup>와 소닉<sup>sonic</sup>의 합성어로, 번식을 위한 동물의 집짓기와 소리를 결합한 단어이다. 지름 7미터의 반구 안에서 오디오 객체들이 상상의 공간을 구성해 존재하고, 세대를 거듭하며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작품은 알고리즘이 생성한 소리와 그 소멸 과정을 통해 인간 외 객체의 존재에 주목하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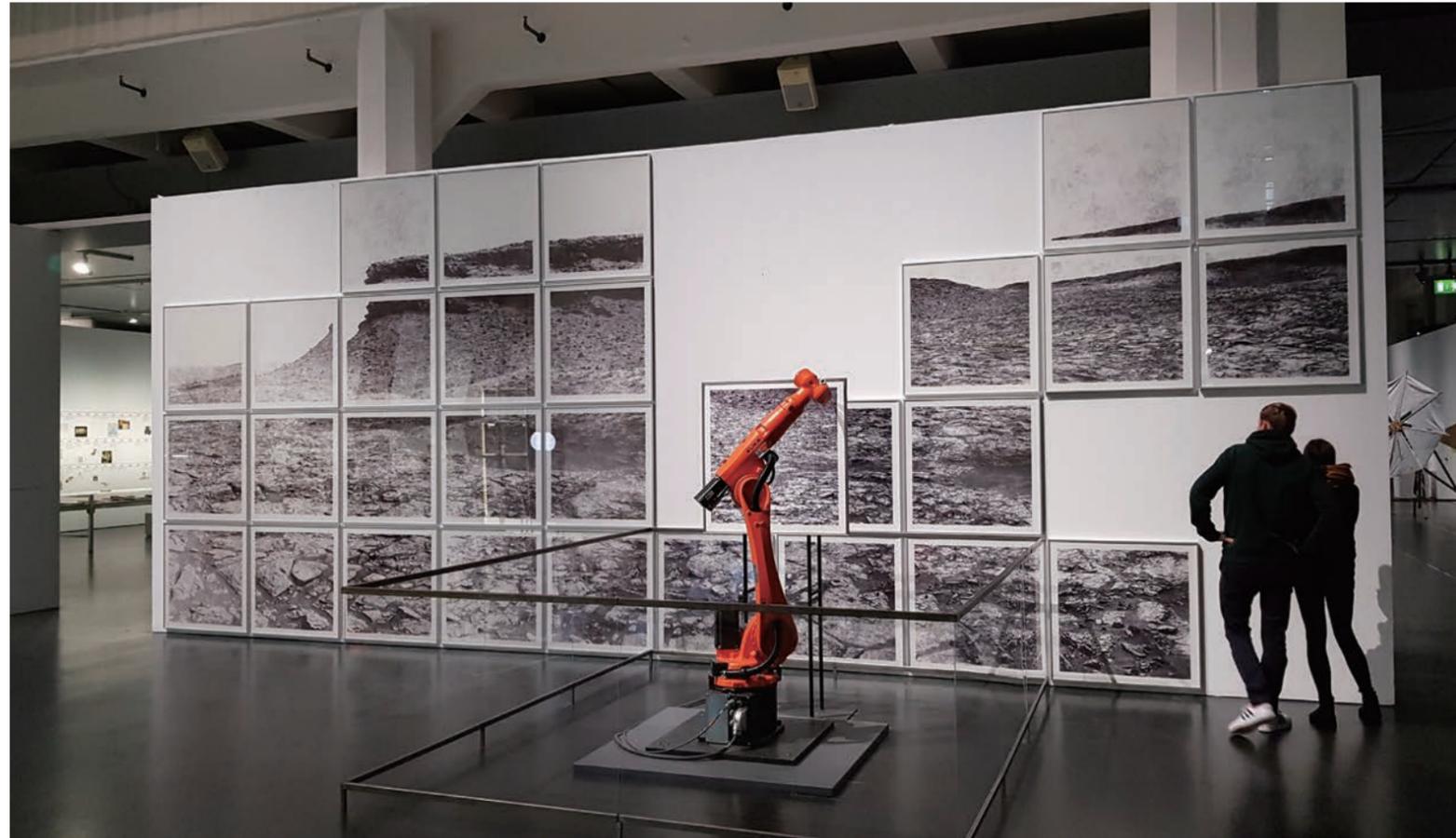
### 후니다킴

점점 가속화되는 기술 발전에 의해 엄청난 정보를 감지하고 분석하는 데 한계를 느끼는 흐름 속에서 작가는 기술 발전에 의해 변화하는 인간의 감각에 주목하고, 무너지는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환경 인지 장치'를 제작해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환경 인지 장치'는 인간에게 직·간접으로 이식되는 디지털 보철물의 형식으로 제작되며, 사운드를 매개로 사유하고 표현한다. <무심한 귀를 위한 애프터타이저 시리즈><sup>2024</sup>는 일상에서 멈추고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위에서 시작된다. 평소 의식하지 못했던 '노이즈'는 단순한 소음이 아닌 그 공간의 고유한 색과 생명력을 지닌 매개체로 변모한다. 작가는 곧 사라질 것 같은 지역의 소리를 기록하고 이를 담은 '플레이어'를 제작한다. 그렇게 소리에 집중하고 의식적으로 관조하는 과정을 통해 본질적인 소리를 찾는 여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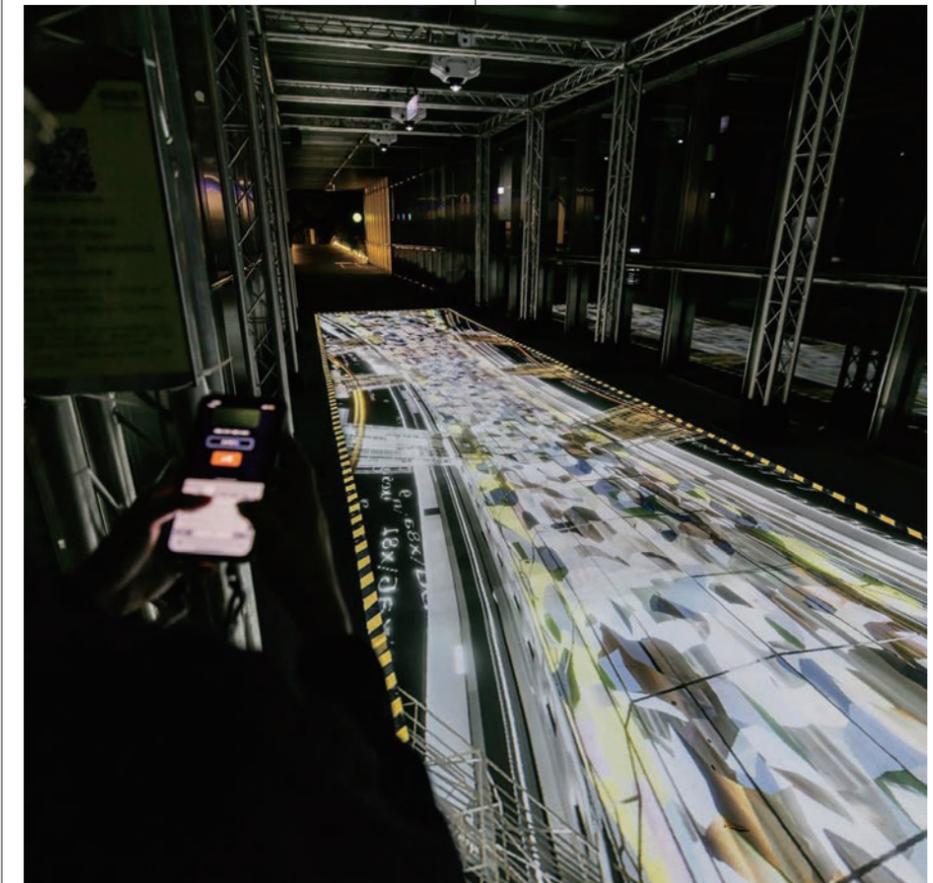


# 우리의 세계, 우리의 미래

협력 기관인 독일 ZKM, 캐나다 ELEKTRA, 타이완 C-LAB의 작품 4편과 해외 초청 작가의 작품 6편을 미리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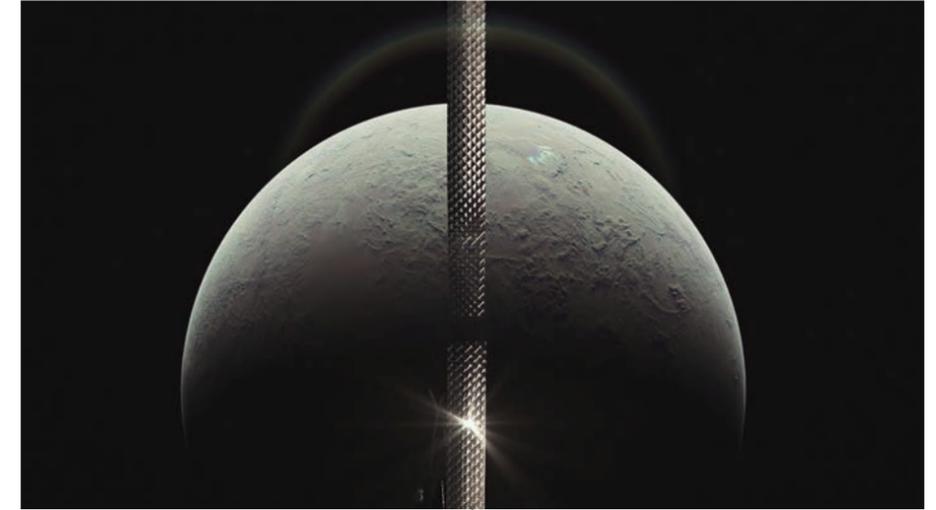


↑ 데이비드 로크비(David Rokeby), 《Voice Scroll》, 2024, 인터랙티브형 설치, 음성 인식 시스템, 텍스트-이미지 생성기, 마이크, 프로젝션, 인터랙션 팔레트  
 ← 로봇랩(robotlab), 《the native picture》, 2024, 산업용 로봇, 컴퓨터, 이젤, 종이, 볼펜, 소프트웨어, 가변 크기  
 ↘ 알랭 티보(Alain Thibault), 《Apollo 11 Dream》, 2024, 영상 설치, 스테레오 사운드, 18분 10초  
 ↓ 2ENTER, 《FRONTIER 01》, 2022, 실시간 컴퓨터 생성 인터랙티브 이미지





← 메모 악텐(Memo Akten), 《Boundaries》, 2024, 단채널 비디오, 스테레오 오디오(테크닉: 커스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머신러닝, 최신 디퓨전 모델, 플루이드 시뮬레이션), 8분15초  
 ↓ 가브리엘 마산(Gabriel Massan), 《HOW DO WE GET THERE?》, 2024, 2채널 비디오와 인쇄한 이미지 설치, 8분



↑ 리암 영(Liam Young), 《Emissary》, 2024, 디지털 필름, 11분



↓ 리비 하니(Libby Heaney), 《Climate Tongues》, 2024, 인쇄한 이미지와 사운드 설치, 7분 38초





↑ 수투(SUTU), <Heart of Darkness>, 2020, VR 영화, 12분  
 ↓ 뱅상 모리세(Vincent Morisset), <Bell Orchestre Sound House>, 2024, 인터랙티브 사운드 설치



# ASSOCIATED

예술가의 진심  
 투명하고 솔직하게, 안무하고 작곡하는 김재덕의 춤  
 예술인 아카이브  
 이주원  
 손현신  
 페이퍼로그  
 제휴협력팀 김성은  
 인사이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 개관페스티벌  
 신당창작아카데미드 기획전시  
 트렌드  
 런던의 한국 여성 미술가들

투명하고  
솔직하게,

안무하고  
작곡하는

김재덕의  
춤



‘음악에 맞춰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함. 또는 그런 예술.’ 무용의 사전적 의미다. ‘감정과 의지를 표현함’이라는 정의 때문에 사람들은 무용 공연을 볼 때마다 ‘의미’를 찾는다. 정답은 없다. 현대무용일수록 더 그렇다. 의미를 찾고 개념을 파헤치는 것은 근대적이다.

현대무용단 모던데이블을 이끄는 무용가 김재덕을 만났다. 그는 <다크니스 폼바>, <시나위> 등 여러 작품을 발표하며 한국 현대무용 최전선에서 활동 중이다. 음악도 자신이 직접 만든다. 김재덕에게 무용은 무엇인지 묻는 순간,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대답이 돌아오기까지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무용은 무용이죠.” 단순하고 짧은 말이었다. 김재덕이 어떤 예술가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었다.

김재덕은 무용을 ‘몸의 움직임’이라고 말한다. 그는 관객이 무용을 보며 의미 찾기를 바라지 않는다. 무용수가 보여주는 다양한 몸의 움직임을 각자의 방식으로 느끼면 그뿐이다. 한번의 인터뷰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김재덕과 대화를 마친 순간 그가 어떤 포장도 없이 있는 그대로 투명하고 솔직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무용을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춤을 추기는 했어요. 초등학교·중학교 때 서태지와 아이들·유승준 노래에 춤을 쳤죠. 잘 추진 못했지만, 즐긴 것 같아요. 어머니의 영향으로 음악도 워낙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명동의 라이브 카페에서 흑인 영가를 부르셨거든요. 원래는 문예창작과에 가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뮤지컬의 꿈을 심어줬어요. 뮤지컬을 하려면 무용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시절 안양예술고등학교 1학년으로 편입했어요. 당시 학과장님이 발레 전공이라 처음엔 발레를 했는데요. 2학년 때 한국무용을 했고, 3학년 때는 대학 진학을 위해 현대무용으로 전공을 바꿨어요.

**안양예고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노는 걸 좋아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녔지만, 공부와는 거리가 멀죠. 책만 잡아도 바로 잠이 오는 편이었어요. (웃음)

**지금은 책을 좋아하나요?** 좋아해요. 무용을 위해 책을 읽는 건 아니고요.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철학이요. 2011년부터 언어에 관심이 생겨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를 읽었어요. 그런데 철학은 ‘드래곤 볼’ 모으기처럼 하나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다른 사상을 함께 읽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피노자·하이데거·칸트·니체 등도 읽게 됐고요. 철학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만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용 못지않게 음악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음악도 직접 창작하고 있고요. 언제부터 음악을 좋아했나요?** 춤과 비슷한 시기였어요. 어릴 때부터 춤도 추고 노래도 했죠. 중학교 때 록 밴드에서 보컬도 했었어요. 신해철·크라잉넛 노래도 불렀고, 메탈리카(Metallica)의 ‘엔터 샌드맨(Enter Sandman)’도 자주 불렀어요.

**10대 시절 김재덕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아티스트는 누구였나요?** ‘무정부스’를 부른 가수 강승모 형이요. 어머니와 친분이 있어서 어릴 때 몇 번 라이브 카페에서 승모 형이 노래하는 모습을 봤어요. 통기타 하나로 에너지의 끝을 보여주는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예술의 경지였죠. 어머니가 “저런 것도 록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점잖던 승모 형이 노래하며 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감정의 범주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었고요. 그 기억이 무용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어요.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광적인 것이 좋은 줄 알아서 특이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죠. 하지만 2~3학년 때, 특이한 것이 때로는 지나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감정을 감추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때가 2003~2004년 무렵이었는데 너무 튀는 건 과짜처럼 보이던 시대였죠.

**한국예술종합학교 진학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고등학교 때 학과장님이 추천했어요. 당시 학교에선 “한예종이 정식 대학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실력은 정말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열심히 해서 한예종 무용원에 들어갔어요. 전미숙·유미나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죠. 한예종에서 만난 선생님들은 무용가로서 정신과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분들의 확고한 가르침을 통해 동시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 배웠어요.

**안무가를 꿈꾼 것은 대학에 입학한 뒤였나요?** 처음부터 안무를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한예종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다 보니 나만의 것을 만들어보고 싶은 순간이 다가오더라고요. 인터뷰에서 항상 하는 말인데, 신해철의 앨범 『모노크롬 Monocrom』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모노크롬』은 서양음악에 한국적인 음악이 결합한 앨범인데요. 고등학교 때 이 앨범을 들으면서 “이런 것이 예술적인 작업이구나” 생각했어요. 들국화의 음악을 들으면서는 한국적인 색깔을 넣는 방법도 고민하게 됐고요.

**학교에서 지금의 아내(현대무용가 김보라)를 만났죠?** 그때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웃음) 한예종 졸업생들이 만든 LDP 무용단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가까워졌죠. 저희의 춤 스타일은 전혀 달라요. 하지만 같은 무용가로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서로 힘도 되고요. 집에서는 맨날 무용 이야기만 해요.

**김재덕에게 무용이란 졸업 이후 전문 무용가로 활동한 건 언제부터였나요?** 2005년 ‘볼레로’에 맞춰 안무한 <크레센도>가 시작이었어요. 이 작품으로 한국무용협회 ‘젊은안무가전’에 나가는데요. 여기서 선정되면 세계무용연맹에서 여는 ‘컬러 오브 댄스’라는 축제에 나갈 수 있었어요. 매년 특정 색깔을 선정해 그 색깔에 맞는 안무작을 선보이는 축제죠. <크레센도>가 선정되면서 2006년 12월에 열린 ‘컬러 오브 댄스’에도 나가게 됐어요. ‘검은색’이라는 주제에 맞춰 만든 작품이 25분 길이의 <다크니스 폼바>였어요.

**<다크니스 폼바>는 무용가 김재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작품이라 애착이 커요. 지금도 많은 공연장에서 <다크니스 폼바>를 찾고 있고요. 국내에서 <다크니스 폼바>처럼 많이 공연한 현대무용 작품도 없을 거예요. 이제는 공연 횟수를 세지 않을 정도니까요. (웃음) 대단한 의미를 담은 작품은 아니에요. 창작 주제가 검은색이라서 ‘검은 때’가 생각났고 자연스럽게 ‘폼바’가 떠올랐죠. 검은색에서 직관적으로 떠오른 이미지를 춤과 음악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다크니스 폼바>를 통해 현대무용단 모던데이블도 생겨났습니다. ‘모던데이블’이라는 이름은 사실**



음악가로 활동하기 위한 일종의 가명이었어요. 직관적으로 책상을 보고 '테이블'이 떠올랐고, '현대의 모든 걸 올려놓을 수 있는 테이블'이라는 생각으로 지은 이름이었죠. 처음 <다크니스 폼바>를 발표했을 때 모던테이블은 일종의 프로젝트였고, 그러다 2014년 LIG 문화재단 협력 아티스트로 선정되면서 지금과 같은 직업 무용단이 됐어요. 현재 저를 포함해 무용수 8명이 방배동 연습실로 거의 매일 출근하며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던테이블을 남성 무용수로만 꾸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로젝트로 활동할 때는 제가 아는 무용수가 없다 보니 학교 선배들과 함께 작업하게 됐어요. 아는 사람들과 하면 대화도 빨리 통하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성 무용수들로 구성됐죠. 그리고 제가 가진 움직임도 워낙 스테미나(체력)를 요구해서, 남성에게 어울리는 동작이 많아요.

**<다크니스 폼바>에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궁금해지는데요. 김재덕에 관한 소개 글을 보면 '서사 구조를 배제하고 움직임 중심의 표현을 추구한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서사에 큰 관심이 없어요. 추상적인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나열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 더 흥미로워요. 그게 자유롭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김재덕에게 '무용'은 무엇인가요?** 무용은 무용이죠. 춤이예요. 요즘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데, 저는 고조선적 사고를 다시 가져올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고조선 때 선조들은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이는 것 이면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늘과 땅, 그리고 그림자도 있는 그대로 느꼈어요. '무용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하나의 트렌드 같아요. 무용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각자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속에 공통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걸어서 드러내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안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몸의 순수성이요. 우리의 몸은 수많은 궤도를 가지고 있어요. [팔을 움직이고 회전시키면서 몸으로 궤도를 그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수많은 감각이 있죠. 다양한 감각과 궤도를 몸 자체로 표현해 몸의 순수성을 드러냄으로써 몸의 가치를 보여주는 작업을 좋아해요. 안무할 때도 몸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다는 생각이 들면 몸 밖의 구성을 생각하죠. 몸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동선과 힘을 관객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 한국무용가 정혜진·현대무용가 김성훈과 협업해 음악과 춤을 만든 서울시무용단 <일무>(2022) ©황필주/세종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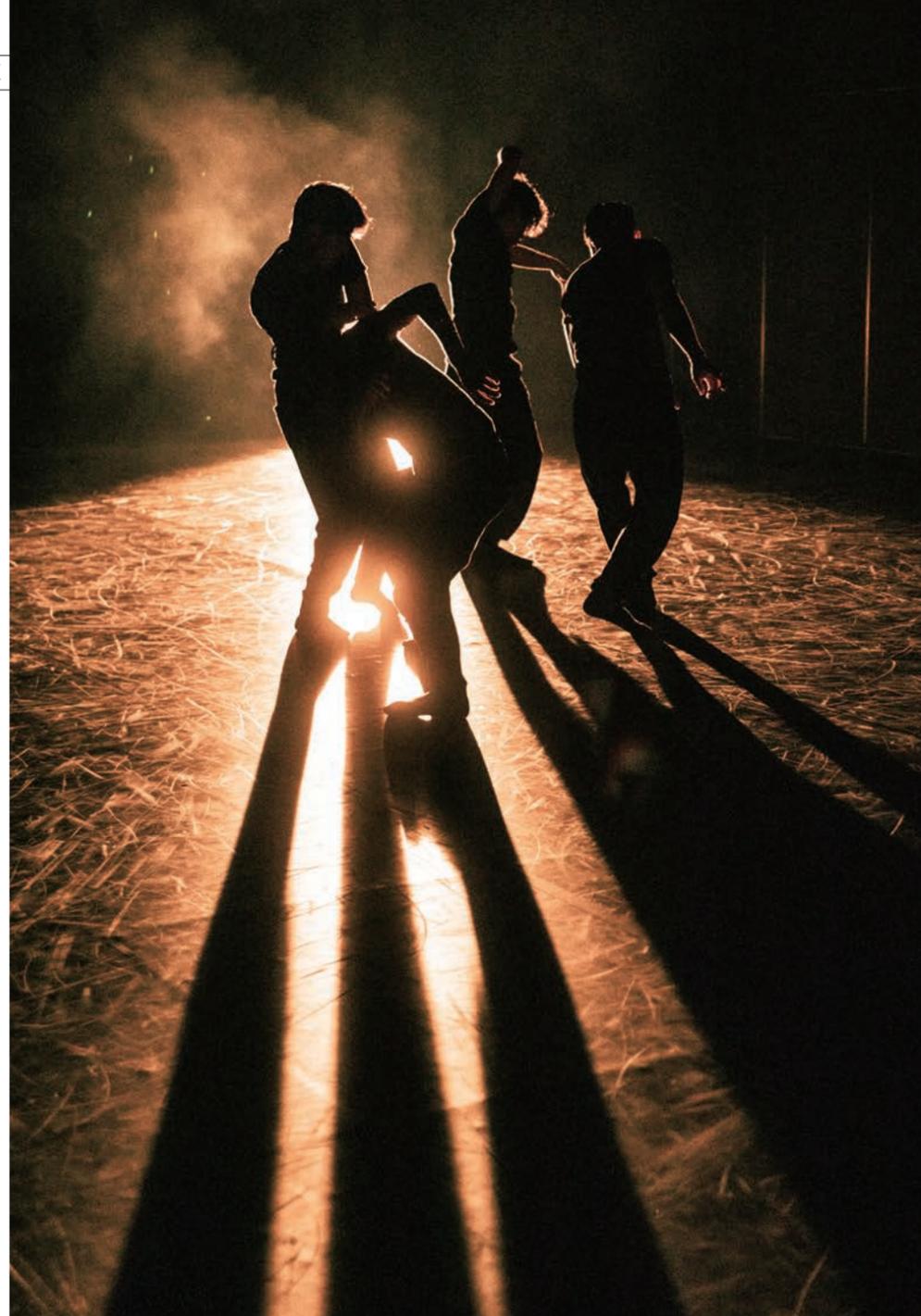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동작 자체를 느끼면 돼요."** 싱가포르 T.H.E 댄스 컴퍼니 해외상임안무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인도네시아 댄스 페스티벌에서 <다크니스 폼바>를 공연하다 인연을 맺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T.H.E 댄스 컴퍼니 예술감독이 자신들의 작품도 안무해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죠. 20대 시절 처음 해외 무용단에서 작업을 제안받은 거라 기분이 좋았어요. 거의 매년 싱가포르를 찾아 작품을 안무하고 있어요. 올해도 <코랄 Chorales>이라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모던테이블도 매년 해외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비결은 무엇인가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저와 모던테이블의 춤이 입소문을 타면서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다크니스 폼바>는 오랜 시간 이어온 작품이라서 더 그런 것 같고요.

**서울시무용단 신작 <사계>를 한국무용 안무가인 국수호와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요?** 서울시무용단으로부터 신작 안무를 제안받았어요. 저 혼자 안무하는 것보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무용가와 협업하는 것이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국수호 선생님과의 협업을 떠올렸는데, 선생님도 저희 제안을 흔쾌히 수락해주셨어요. 지난해 12월부터 세 번 정도 선생님을 만나 함께 작품을 만들어왔어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계四季'라는 주제가 나왔고요. '사계'는 계절을 뜻하면서 동시에 인생을 가리키기도 하죠. 제가 인간의 탄생과 화려함을 의미하는 '봄'과 '여름', 국수호 선생님이 중년의 멋짐과 나이듦을 보여주는 '가을'과 '겨울'을 안무하기로 했어요. 선생님의 동작을 보며 일부 요소를 제가 안무한 장면엔 넣었고, 선생님은 반대로 제 동작에서 가져온 부분을 '가을'과 '겨울' 부분에 넣었어요. 거의 7개월 동안 작업한 작품이예요.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제 작품에서 의미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몸이 보여주는 다양한 선, 그리고 힘을 느끼면 돼요. 동작 자체를 느끼면 됩니다. <사계>의 경우 김재덕의 관점에서 봄과 여름이 어떤 것인지 느끼면 되는 거죠. 하지만 국수호 선생님이 안무한 가을과 겨울은 다를 거예요. 선생님께는 서사가 중요하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추상적으로 시작해서 서사적으로 가는 작품이라



관객으로선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겁니다.

**무용가로서 목표가 있나요?** 무용가로 사는 것 자체가 목표예요.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 기쁘죠.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국수호 선생님 같은 분들에게 감사해요. 지금의 무용계가 존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춤을 췄으니까요. 무용이 대중화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요즘은 현대무용을 취미로 하는 분들도 많아져서 무용과 대중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크니스 폼바> 공연이 계속 이어져요. 제주·성남

↑ 7월 대학로극장 퀴드에서 공연한 <다른, 춤을 위해 Part 1> 중 김재덕의 안무작 <Breathing Attack II 中> ©BAKi/대학로극장 퀴드

등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고요.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예술가와 협업하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코레아시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말레이시아에 가서 현지의 전통춤, 노래를 리서치했고 이걸 토대로 현지 아티스트와 작품을 만들 계획이예요.

**김재덕의 꿈은 무엇인가요?** 모던테이블 단원들과 같이 춤을 추는 것이요.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춤을 출 겁니다.

# 이주원

전통/탈춤

b.1980

@greatest\_masque

2024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개관 페스티벌

2022 퀴드 개관 페스티벌

↓ 2023 서울거리예술축제 폐막작으로 선보인 천하제일탈공작소 (나나네나나노)



“ 천하제일탈공작소에서 현재 탈춤의 모습을 고민하는 이주원입니다. 최근 <탈 너머의 천탈>에서 탈춤꾼을 소개한 글이 저를 잘 담아낸 것 같아 그대로 옮겨 보았습니다. ‘목적 없는 수동적인 삶을 지향하지만, 번번이 꽃히는 일들이 있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뜻대로 살지 못할 거 눈앞의 일이나 잘 처리하자는 마음으로, ‘빅 피쳐’를 그리지 않고 닥치는 일만 처리하고 지내는 중입니다. 탈춤으로 공연계에 발을 들였으나, 닥치는 대로 살다 보니 이것저것 별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주얼리, 이매, MC이노마야, 이작가야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많은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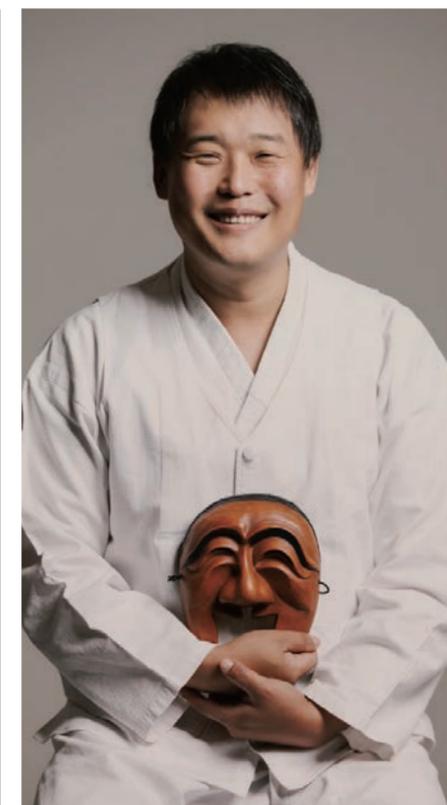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에서 연희극을 만든 것이 시작이었어요. 이를 계기로 함께 학교에 다니던 탈춤꾼 3명이 모여 천하제일탈공작소를 만들었어요. 탈춤과 졸업 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거든요. 과거의 탈춤은 시대에 따라 이야기도 변화했는데, 어느새 탈춤이 변하지 않게 되면서 대중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에 대한 자각, 탈춤으로 먹고살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탈춤을 만들자’라는 합의가 생기면서 천하제일탈공작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전통 탈춤 공연과 창작 공연을 이어오고 있어요. ”

“ 제가 예술가라 스스로 자각하는 순간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신청·갱신할 때, 예술인산재보험료가 통장에서 인출되고, 예술인패스로 티켓 할인을 받을 때예요. 전통 탈춤의 전승자로 시작해 학교를 졸업하고, 예술가라고 자각하기 전에 공연자로 직업 전선에 먼저 뛰어든 느낌이 있어요.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창작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예술인이기보다 직업인이라 스스로 생각했어요. 2022년 <풍편에 년쫓 들은 아가멤논> 각색을 맡았을 때 ‘(내가) 이제 창작자인가’ 하는 자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의 창작은 몸에 익숙한 전통의 것을 풀어내는 과정이었는데, 작가로서의 각색 작업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스신화와 탈춤의 비슷한 부분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구성했는데, 작품 크레딧에 ‘각색’으로 이름이 오르는 건 처음이기도 했고 글을 쓰는 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창작이었죠. ‘그간 나름 잔뼈가 굵었구나’ 하며 스스로가 대견하기도 했어요. 그 외에도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해낼 때 창작자임을 자각하곤 합니다. ”

“ 천하제일탈공작소에서 진행한 모든 작품이 제 대표작입니다. 어느 하나 애착이 가지 않는 작품이 없습니다. 발표 당시에는 호불호가 강한 작품도 있고, 관객의 반응에 놀라기도 하고, 하던 거 하고 있다는 비난을 듣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애정이 가지 않는 작품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돈만 많으면 천하제일탈공작소 축제를 벌이고 싶을 만큼 저에게는 모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꼽자면 전통 레퍼토리 중에는 <가장무도>가 전체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던 탈춤 속 개인의 춤과 재담의 기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창작 중에서는 <오셀로와 이야기>가 우리 단체의 두각을 드러낸 작품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풍편에 년쫓 들은 아가멤논>은 전통 탈춤이라는 그릇에 그리스신화를 담아낸, ‘뚝배기에 담긴 그리스요거트’ 같은 작품으로, 그리스 고대 원형극장에서 꼭 공연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최근작으로 <추는 사람>이 있는데, 과거의 탈춤이 시대의 거대한 부조리를 드러낸다면 이 작품에서는 탈춤꾼 개인이 느끼는 사회에 대해 자신의 말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본 사람 중 천하제일탈공작소의 작품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습니다. 꼭 보십시오! ”

“ 올해 천하제일탈공작소는 다 같이 프랑스 알레스Ales에서 열린 거리예술축제에 갔어요. 여러 공연을 보면서 많이 보고 배웠는데 그중에서 비 플랫폼Be Flat의 <Follow me>라는 공연이 인상적이었어요. 출연자의 기술도 만점이었고, 관객을 대하는 태도(선을 확실히 그어주고, 풀어주고, 놓아주고),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 모든 면에서 탁월한 공연이었어요. 중간중간 이슬아슬한 액트러배틱과 파쿠르에 연주까지 곁들여가며, 시선을 놓치지 않고 관객을 리드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막연히



천하제일탈공작소에서 만들고 싶은 거리공연의 모습을, 그들이 액트러배틱과 파쿠르로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기예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관객을 이끌고 참여시키는 공연을 만들고 싶어요. 탈춤을 즐기면서 탈과 춤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강강술래도 하고, 닭싸움도 하고, 같이 노래하고, 함께 걷고 뛰고, 마지막에 신나서 저절로 춤이 취지는 공연을 만들고 싶어요. ‘피리부는 사나이’처럼 흘러서 따라오는 공연이요. ”

“ 천하제일탈공작소는 3명으로 시작해 현재 8명이 창작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탈 너머의 천탈>이라는 공연을 통해 탈춤꾼 각자가 작품을 구성해 발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가로, 연출로, 배우로, 춤꾼으로 거듭나며 반짝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과정에서 저도 반짝였고요. 얼마 전까지 우리의 목표는 탈춤꾼이 전통예술인에서 창작자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의 목표를 성취해 이제는 또 다른 목표를 그릴 때입니다. 아마 창작자가 된 탈춤꾼이 그리는 탈춤이지 않을까요? 무엇이든,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반짝일 계획입니다. ”



© 스킵오오코비트

## 손현선

시각예술/회화·퍼포먼스

@sontomoi

2024 서울시민예술학교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저는 시각예술가로서 ‘본다는 것’을 다시금 질문하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하는 데 집중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몸으로 감지되는 감각의 다양한 추상적 상태를 그려내는 회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회화를 수행하는 몸의 움직임을 다시 평면 위에 구체화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 퍼포먼스라는 움직임으로 전시 안팎에서 다양한 만남의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작 활동을 처음 시작하고 발표하게 된 계기는 2015년 아코코 신진작가 워크숍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학교 밖에서 만난 작가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세계를 탐색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워크숍에서 만난 동료 박희자·최병석·서윤아 작가와는 우주당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해 인사미술공간에서 《COSMOS PARTY: 우리는 우주에 간다》2016라는 전시를 열었습니다. 당시에 만난 윤지영 작가와는 워크숍 이후에도 교류를 이어가며, 2017년 손현선·윤지영·장서영이

← <투명-몸>, 2023, 투명 필름지에 젤 미디엄, 가변 크기, 로쿠스 스투스 설치 전경

‘아크로바틱 코스모스’라는 프로젝트 작가 그룹을 만들어 전시 활동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아무와 만나지 않고 작업실에서 혼자 서성일 때 스스로 예술가임을 느낍니다. 작업실에서의 시간은 스스로 예술가임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가혹하고 너그러운 양면의 시간 속에서 한없이 모자람을 느끼기도 하고, 때론 작업이 품은 무한한 가능성을 온몸으로 탐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는 작업실 안에서 도망칠 곳 없이 ‘아, 나는 예술가구나’ 하고 혼자 느끼는 거죠. 저는 이 홀로의 시간을 긍정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회화를 수행하는 몸에 관심을 기울이며 다양한 물질의 감각을 만지고 움직이면서 작업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시각’ 예술을 해오며 오래된 훈련과 교육의 축적으로 인해 눈과 손은 견잡을 수 없이 비대해지고 나머지 신체 기관은 점점 퇴행하고 무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각적 재현에 있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도 했어요. 이후 ‘하던 대로 안에서 더 잘’이 아니라 내가 살피지 않았던 몸의 연결을 돌보다보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으로 다년간 자신의 몸에 관심 가지고 움직이며 그간의 몸을

탈학습<sup>unlearn</sup>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종의 재활 속에서 저는 시각 외에 다른 감각과도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었고, 물질과 관계하는 몸의 반경이 확장됨을 느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 나온 작품 중 하나가 <불, 안>2024입니다. 불이라는 매력적인 대상을 이미지의 재현으로서가 아닌, 그림 그리는 몸과 물질의 접촉 감각에 집중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관찰과 재현이 아닌 행위로서 대상과의 거리를 뺀이 아니라 안으로 전복하거나 없애며 붉은 안료를 손으로 만지고 더듬고 지우며 캔버스 화면에 접촉하고 움직였습니다.”

“좋아하는 영감의 장소는 책과 사람, 예술 공간 그리고 그 사이를 이동하는 길 위입니다. 저는 작업이 잘 안 풀리면 책을 주문하곤 합니다. 책 사기, 책 읽기는 저보다 먼저 길을 걷은 선배, 선생님들의 작업을 남몰래 훑듯 배우는 행복한 영감의 시간입니다. 종이책이라는 오래된 물질을 손에 쥐고 넘기며 무연히, 때론 필연적으로 배움과 깨달음의 언어를 만날 때 큰 설렘을 느낍니다. 때로는 사람을 찾습니다. 연결의 감각이 필요할 때, 혼자서는 할 수(살 수) 없음이 자명한 순간, 동료 예술가에게 만남을 청합니다. 그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그 무엇보다 건강하게 기를진 영감의 양분을 얻습니다.”

↓ <불, 안>, 2024, 캔버스에 유채, 193.9×260.6cm, diptych



“한편으로는 동시대 예술을 품은 공간에서 힘을 받기도 합니다. 예술 경험은 저에게 좋은 싫든 파장을 남깁니다. 저는 관객인 동시에 다른 창작자의 보이지 않는 동료로서 관람의 행위에서 동시대적 연결 감각을 더듬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좋은 경험을 했을 때, 저는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결국은 혼자서 시간으로 되돌아가지만 예술 경험과 함께 손잡고 돌아가는 길 위에서 재생의 감각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길은 이 영감의 발생지를 연결하고 소화하는 장소입니다. 길을 걷다보면 다양한 생명, 인간, 비인간, 사물 그리고 내 안의 생각 등을 만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보고 있다는 감각이 감지될 때 사진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최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길은 밤 숲길입니다. 적막한 밤 숲에서 가을이라는 계절이 들려주는 다양한 낙하의 소리와 움직임을 감지하며 시간의 신비를 느낍니다.”

“10월 12일 통의동클래식에서 열린 <음 몸 집>(연출·연주 김지연, 공동창작·출연 위성희·송명규)에 다녀왔습니다. 피아노 연주와 움직임이 만나는 공연으로, 저는 피아노 뒤, 그러니까 연주자 등 뒤에 앉았는데요. 김지연의 등을 투과하며 들려오는 첫 음의 몽클함 이어 두 무용수의 움직임이 음과 함께 포개지고 흩어지고 사라지는 시간의 호흡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린이 관객 두 명과 함께 공연을 본 것이 특히 좋았습니다. 이들의 자연스레 이완하고 움직이는 몸이 현장의 분위기를 생동하게 했거든요.”

“오는 11월, 자화상을 주제로 프라이머리 프랙티스<sup>Primary Practice</sup>에서 한성우 작가와의 2인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시를 준비하며 ‘현재의 나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자 질문은, ‘대화’야말로 마주하는 타인을 통해 내가 드러내고 느껴지는 형식이자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대화라는 형식을 미술 안에서 실천하는 경험을 만들고자 지난 9월 워크숍을 진행했고, 총 여덟 분을 만나 ‘대화’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발전시켜 <백투백: 대화>를 2025년 한 해 동안 전시이자 작품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형태의 전시로 더 많은 분과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제휴협력팀 김성은 누군가의 미래를 그리는 일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했어요. 공연에 관한 업무 이력도 다양한데, 기획자로서 서울문화재단에 함께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어릴 적부터 동네를 탐방하고 해찰하는 시간을 즐기며 자랐습니다. 남들은 부질없는 시간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러한 시간 속에서 작은 발견에 기뻐하기도 하고 마음의 감각에 말을 걸어오는 새로운 생각에 집중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악보에 담으며 작곡을 전공하게 됐고, 공연·교육 등 음악으로 소통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익숙한 곳에서 뜻밖의 마주침이라든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시도하며 하루하루 재미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축적된 경험, 시간의 힘을 바탕으로 동료들과 무언가를 만들고 공연·교육·전시 등 여러 형태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기획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전국 공연장을 다니며 국내외 아티스트와 오케스트라 공연, 융복합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죠. 예술이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무언가 새롭게 탄생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것을 즐긴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동참하고 싶었고, 예술 창작과 발표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과 중요성에 주목하게 됐어요.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관점에서 서울문화재단이 할 수 있고, 재단이기에 가능한 사업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입사 후 어떤 업무를 진행했나요.** 2020년 생활문화팀에서 근무를 시작해 서울스��이지11 TF로 문래예술공장 문화향유팀, 그리고 현재의 제휴협력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서를 거쳤습니다. 돌아보니 재단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함께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전 11시, 11개 공간에서 진행되는 '서울스��이지11' (현 서울스��이지 2024)을 기획·설계해 총괄 담당을 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운영할 때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서울문화누리 캐릭터 누리와 서리를 제작해 대상자에게 친근하게 접근하고자 고민했습니다. 이렇듯 주어진 업무 안에서 새롭게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이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고, 일상의 업무에 더욱 즐겁게 임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예술인NFT 사업을 맡고 있어요. 올해 새로운 작품 발행이 예정돼 있다고요.** 서울예술인NFT는 기초예술 분야 공연(연극·무용·전통·음악) 장르의 예술인이 NFT 작품을 제작하고 판매·유통·홍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예술지원 모델입니다. NFT는 주로 시각예술 분야에서 주목받았는데요. 이를 2022년 공연예술 분야에 도입, 현재까지 63개의 NFT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세화미술관에서 오프라인 전시를 개최하며 온라인 경계 너머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단순히 작품 창작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 판매까지 연결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예술인에게는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NFT만의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원본성과 소유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예술인으로서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매력 있는 사업이지요. 올해도 26개의 작품이 제작돼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술 장르는 블록체인 사업 안에서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담당자로서 NFT와 예술의 결합에 주목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NFT로 제작된 작품은 디지털 유산으로 문화·사회적 가치가 보존된다는 점이에요. 유구한 시간이 흘러도 존재할 테니까요. 예술 작품을 소장하는 동시에 그 가치가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해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요? 이에 더해 서울예술인NFT 사업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는 분야에 공공 영역이 지원함으로써 청년예술인부터 원로예술인과 단체까지 다양한 예술인의 도전과 시도를 지원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휴협력팀으로 옮기기 전에는 시민 결에서 문화예술 향유를 돕는 여러 사업을 운영했다고요.** 생활문화팀·문화향유팀 등 사업을 통해 시민·예술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한 현장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서울스��이지11 대학로센터 공연을 열 때는 인근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초대하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인 공연 관람 연령이 7세 이상인 경우가 많아 아이들은 어린이 특화



공연이 아니면 다양한 작품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서울스��이지11은 열린 공간이 아니어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돛자리를 깔아 편안한 관람 환경을 조성해줬어요. 70분이라는 꽤 긴 시간 아이들은 온몸으로 공연을 느끼더군요. 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고 있자니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미래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에 더욱 오래오래 관여하고 싶어진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예술이 깊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엉뚱한 질문과 귀여운 탄지가 자유롭게 연결되는 과정이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아는 것'에 갇히지 않도록 '잘 모르는 것'에도 마음을 내주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을 이야기해볼까요.**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은 왜 달리는 걸까요? 지난 6월, 어쩌다마라톤에 출전하게 됐는데 피니시 라인을 밟는 순간 달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됐어요. 그렇게 달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길에서든 뭘 수 있을 것 같은 건강한 에너지를 얻고 있어요. 달리는 순간만큼은 선포해지는 감각을 오롯이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즐겁고, 힘들지만 성취감 넘치는 행위를 통해 많은 영감을 얻고 있지요.

**스무살 서울문화재단에 축하 인사를 건네주세요.** 재단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뜨거운 지원을 주고받고 싶습니다. 이 응원 메아리가 끝없기를 바라면서!



# 시작, 설렘 가득한 순간 서울문화예술 교육센터 서초 개관페스티벌

서울 서초구의 한복판, 콘서트홀이 밀집한 음악의 중심지에 새로운 예술교육센터가 자리했다.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5개소 중 음악 장르에 특화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다. '음악, 그 이상의 경험The Experience Beyond Music'이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는 단순한 기능 중심의 음악교육을 넘어 음악이 지니는 가치를 다방면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시작한다. 공연장·양상블실·연습실·프로그램실·마스터클래스실·라운지 등 다양한 음악 경험을

담아낼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을 마련해 예술가와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11월 개관을 맞아 펼쳐지는 개관페스티벌 'OVERTURE'는 이 새로운 공간이 나아갈 방향성을 보여주는 자리다. 100여 명의 음악가·교육예술가·기획자뿐만 아니라,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오페라단, 스타인웨이, 교보문고 등 여러 기관 및 기업도 동참한다. 6편의 공연을 비롯해 마스터클래스·워크숍·강연·살롱·포럼·전시로 시민과 만날 예정이다.

시작을 알리는 음악, 서곡Overture의 첫 음이 울리는 순간 우리의 눈앞에는 거대한 무대가 활짝 펼쳐진다. 그곳에서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음악과 이야기를 미리 만나며, 얼마나 흥미진진한 여정이 시작될지 상상하게 된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 개관페스티벌 'OVERTURE'는 바로 그 설렘 가득한 시작의 순간을 선사하는 축제다. 누군가의 처음을 함께한 친근한 음악부터, 늘 새롭게 다가오는 고전, 새 역사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르는 혁신적인

시도까지, 새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다양한 음악을 한자리에 모았다.

개관페스티벌 'OVERTURE'는 이 다양한 음악을 다채로운 방법으로 마주하기를 제안한다. 공연장에서 귀 기울여 듣는 음악부터 읽기를 통해 만나는 음악, 연주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떠올리는 음악, 직접 악기를 만들고 소리내보며 경험하는 음악, 눈으로 감상하는 음악 등 이번 축제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우는 활동으로 가득하다.

**그야말로 축제! 공연과 마스터클래스**  
축제를 화려하게 장식할 개관 공연 <OVERTURE>에는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아레테 콰르텟이 한 무대에 올라 '시작'의 의미를 담은 곡을 선보인다. 여러 협력 단체와 양상블을 이루는 기획 공연 '양상블 시리즈'에서는 서로 다른 형식의 공연 다섯 편을 만날 수 있다. 서울예술상과 협력해 마련한 음악극 <베토벤: 어둠에서 영원까지>,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이 전하는 바로크음악의 정수 <세상의

↓ 피아니스트 손민수 ©Shin-joong Kim/MOOC



모든 바로크 음악>, 서울스테이지2024와의 협력으로 마련된 서울시립교향악단 목관 앙상블의 선율과 같은 공연 <Happy Birthday>, 국립오페라단 해설이 있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의 신진 음악인 클래식 콘서트 <Tutti>가 펼쳐진다.

또한 세계에서 활약하는 뛰어난 연주자에게 음악을 배우는 특별한 수업, 마스터클래스를 시민 공개 프로그램으로 선보인다. 연주자는 물론 청중에게도 특별한 배움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대가와 젊은 음악가가 만나는 이번 마스터클래스에서는 피아니스트 임운찬의 스승 손민수, 베를린 슈타츠헤펠레의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 그리고 서울음악영재교육 장학생 출신의 젊은 음악가들이 함께한다.

**워크숍부터 전시까지 음악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  
음악과 소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워크숍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소리를 새롭게 인지해보는 경험을

제안하는 기획 워크숍 시리즈 '메이커스 워크숍'에서는 음악과 소리를 다루는 아티스트들과 협업한 세 개의 워크숍을 만날 수 있다. 프랑스 출신 사운드 아티스트 해미 클레멘세비츠Rémi Klemensiewicz와 함께 일상의 소리를 새롭게 인식해보는 워크숍 <상상의 소리 조각>, 타악기 연주자 진유영과 자연의 재료로 악기를 만들어보는 가족 워크숍 <자연에서 온 악기>, 첼리스트 이금희가 진행하는 즉흥 합주 워크숍 <우리의 양상블>이 준비된다. 신규 센터에 특화된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예술교육랩'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두 개의 워크숍도 이번 개관페스티벌에서 시범 운영된다. 기술 매체를 활용하는 청소년 대상의 음악 교육 프로그램으로 <2024 골든레코드: 움직이는 스키퍼>, <동물의 사육제, 시와 몸으로 쿵쾅>이 열린다.

두 편의 강연은 개관을 맞아 서양 음악사 속 의미 있는 '시작'을 들여다보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위대한 작곡가들의 첫 음악, 작곡가로서 첫발을 내디딘 시절의 작품을 알아보는 <거장의

첫 발자국>, 기악이 본격적으로 발전했던 바로크 시대의 악기에 대해 들여다보는 <악기의 시작>이다.

서초센터1층의 고사양 스피커 링돌프를 활용한 특별한 음감회, 살롱 <귀 기울이다>도 마련됐다. 음 하나하나, 연주자의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음악을 세심히 감상해보는 시간으로, 피아니스트 김규연, 바이올리니스트 박진영의 안내에 따라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세계로 몰입해본다.

음악 장르 기반 예술교육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탐구하는 포럼도 준비됐다. 음악 분야의 다양한 층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여러 사례를 짚어보고 다양한 통찰과 영감을 나눈다.

사전 예약 없이 공간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전시도 준비돼 있다. 전시<상상의 악기박물관>은 우리가 사랑한 악기, 그리고 이들을 '우리의 방식'으로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을 선보인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김재훈 <PNO>, 백정기×이금희 <춧불발전기와 전자첼로>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으며, 스타인웨이와의 협력으로 자동 연주 피아노를 활용한 가족 참여형 워크숍 <멜로디데이>도 마련된다. 또한 개관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예술인 다섯 명이 스페셜 큐레이터로 참여한 기획전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교보문고와 협력해 진행된다. 교보문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서초센터에서 오프라인 전시로도 만날 수 있다.

삶 가까이에서 저마다의 음악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는 마치 서곡처럼, 이번 축제에서 새로운 음악적 경험의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의 음악적인 삶이 시작되기를 기대하며, 개관페스티벌 'OVERTURE'에서 음악, 그 이상의 경험과 영감의 순간을 만나보기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  
개관페스티벌 'OVERTURE'**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서초구 반포동1-2)



# 공예 디자인 작가들의 '요즘 전시' 신당창작 아케이드 기획전시

사람들은 예술가가 특별한 감각으로, 남들이 갖지 않은 재능을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는 이들이라 생각한다. 무용수는 춤을, 음악가는 음악을, 미술가는 미술을……. 그리고 미술 영역 중에서도 재료와 방식에 따른 섬세함을 일상 예술로 만드는 공예·디자인 작가들이 이곳에 있다.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중구 신당중앙시장 지하에 위치하며, 2024년에는 도자·금속·섬유, 기타 공예·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입주작가 총 36명이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지하인 탓에 왠지 낯선 전통시장과는 달리 연중 차분하고



의외로 조용하다. 들리는 소리의 대부분은 '툭, 툭' '탁' 작업하는 소리 또는 간헐적 노동요 같은 음악뿐이다.

많은 작가 수만큼 실 틈 없는 작업이 진행되지만, 동시에 지하에 위치한 낡은 공간인 탓에 에피소드도 억만장자급이다. 어느 날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는 작가들을 향해 행인이 "저 아래에도 사람이 사냐?" , 또 다른 행인이 "여기 전쟁나면 숨는 방공호네"하고 외친다. "네. 이곳은 사람도 머물고 심지어 '힙'한 공예가 창작되고 있는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입니다"



예상되지 않는, 만일의 사태에 숨을 수도 있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깥 사정을 알기 어려운 신당창작아케이드지만 2009년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무려 554명의 공예 작가와 연을 맺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작가들의 창작을 밖으로, 밖으로 소개하고자 추진한 기획전시도 올해로 6년째를 맞이했다.

지난해 서울문화재단은 국내 첫 공립 공예박물관인 서울공예박물관과 공예·디자인 작가의 창작지원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지난 3월 그 결실이자 시작을 알리는 업무협약을

그러던 중 박물관과의 협약체결은 무엇보다 작가들이 고대하는 공간에서 전시를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담당자로서도 마치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듯 반가운 소식이었다. 공간 찾아 삼만리 헤매기를 멈추고, 절약된 시간과 비용을 입주작가의 또 다른 창작지원에 쏟을 수 있었다.

《공예직감工藝直感》은 이러한 의미와 필요성을 고민한 신당창작아케이드와 서울공예박물관의 협력으로 탄생했다. 박물관 전시동 특별전시 공간에서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36명의 예술적 감각으로 창작된 신작 70점이 시민에게 첫선을 보인다. 문화적 경험이 감각이자 취향인 시대에 일상 공예품은 물론 아트퍼니처art furniture, 평면 오브제, 디자인 작품이 다수 출품된 이번 전시는 보는 이에게 스스로 취향을 찾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도자22점, 금속10점, 섬유9점, 목공을 비롯한 기타 공예17점, 디자인 작품12점 등 여러 장르와 기법이 적용된 작품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나아가 전시 부대행사로 현장에서 참여 가능한 '도슨트 타임'과 작가와 직접 만나 소통하는 '릴레이 아티스트 토크', 예비 공예인과 학생을 위한 '예비 공예인 투어'가 마련돼 전시를 즐기는 다양한 감상법을 제시한다.

한편 기획전시의 역사와 함께한 신세계L&B와 신당창작아케이드 전·현직 입주작가들이 협업해 개발한 식기·술잔·패키지 등 테이블웨어 18점도 박물관 안내동1층에 전시된다. 전시가 이쯤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아쉽다. 서울공예박물관과 신당창작아케이드가 야심 차게 협력한 또 다른 전시, 박물관 쇼윈도 전시 《LIVILD(Living+Build)》도 같은 기간 진행되기 때문이다. 쇼윈도 갤러리는 박물관 전시3동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지만 대로변과 맞닿아 있어 오가는 이들이 알차게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신당창작아케이드 기획전시 《공예직감》**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서울공예박물관 전시동1층

**윤경현·조예린 《LIVILD(Living+Build)》**  
10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서울공예박물관 전시동3층

**신세계L&B 제휴 결과전시 《에센스 앤드 모어\_식탁의 정수》**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서울공예박물관 안내동1층



## 런던의 한국 여성 미술가들 양혜규. 이미래의 전시

얼마 전까지 테이트 브리튼 TATE Britain에서는 영국 여성 화가의 역사를 정리하는 전시 《Now You Can See Us : Women Artists in Britain 1520-1920》가 열렸다. 왕의 초상을 그린 여인, 남편의 전폭적 지원으로 초상화가로 활동했던 여인들은 남겨진 기록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을 되찾았다. 1871년 슬레이드 예술학교 Slade School of Fine Art가 문을 열기 전까지 여성의 예술교육 자체가 불가능했고, 20세기에 들어서야 그간의 차별과 설움 속 지난한 수련을 거친 작업이 폭발적으로 등장한다. 2024년 10월의 런던에서 우리는 이제 그녀들을 바로 볼 수 있다.

10월 9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헤이워드 갤러리 Hayward Gallery와 테이트 모던 TATE Modern에는 한국 여성 작가 양혜규 그리고 이미래의 전시가 동시에 열렸다. 다음 날인 10일, 바부르크 연구소 The Warburg Institute에서는 한국 여성 예술가의 작품을 집중 조명한 책 『페미니즘 미술 읽기: 한국 여성 미술가들의 저항과 탈주』(김홍희 저,

← 《Haegue Yang : Leap Year》 전시 전경, 사진 Mark Blower, Courtesy the artist and the Hayward Gallery

열화당)의 영문판 『Korean Feminist Artists : Confront and Deconstruct』의 출간 기념 토론 행사가 열렸다. 이어 13일에는 아시아 여성 문학가로는 최초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들려왔다. 이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 양혜규, 보는 만큼의 세상

헤이워드 갤러리에서 양혜규 작가의 개인전 《Leap Year》(2025년 1월 5일까지)가 열렸다. 전시 제목인 'Leap Year'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윤년'이라는 뜻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날'과 '달', '해'의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의 오차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때로는 사라졌다 나타나는 특별한 시간성을 의미한다. 전시 제목은 경계가 없는 '개념'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가의 작업과 꼭 잘 어울린다. "떨랑, 떨랑" 방울 소리를 내며 발을 걷어내는 일종의 의식을 치르고 전시실 안으로 들어서면 공간 가득 작가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양혜규의 조형 언어 '블라인드'와 '조명', '방울'과 '직조된 바구니' 등이 한꺼번에 눈에 담긴다. 어느 회고전처럼 연대 순이나, 혹은 일련의 주제로 분리해 기획하지 않은 덕분에 작업은 더욱 얽히고설켜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연다. 관람객은 이 복잡한 코드를 읽어내기 위해 한껏 집중할 모습이다.

늦여름 밤 평상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귀뚜라미 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이가 그 시공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 팔레스타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가 팔레스타인의 민족주의 운동인 '시오니즘 Zionism'을 이해할 수 있을까?

← 《Hyundai Commission : Mire Lee : Open Wound》 전시 전경 © Larina Fernandes/Tate

문화·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전시 설명 문구가 친절하면서도 친절하지 않게 느껴진다. 일상의 재료를 사용하되 세련되고,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는 작가의 방식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더욱 이질적으로 느끼게 한다. 전시에 대한 영국 언론의 평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별점 1점을 주며 혹평을, 또 다른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별점 4점을 주며 후한 평을 내렸다.) 우리는 아주 작은 바늘구멍을 통해 내가 보는 만큼의 세상을 본다. 각자의 렌즈를 통해 각자의 해석으로 읽어내면 그만이지만 읽어내려는 노력이 없다면 작가의 작업은 그저 일상적 재료의 조합으로 남을 뿐이다.

### 이미래, 공간의 무게와 작품의 힘

전시장에 들어서면 으레 시각적 자극에 압도된다. 하지만 테이트 모던 터바인홀에 설치된 이미래의 작업 'Open Wound'는 온몸의 감각을 깨운다. 고정되지 않은 비정형의 철사 구조물 위에 텅텅한 색으로 물든, 처참하게 찢긴 천이 주렁주렁 매달려 미세하게 움직인다. 깊이 걸어 들어가 보면 이 거대한 생명체의 심장부에 다다른다. 천천히 돌아가는 기계식 회전 장치는 거대한 구조물에 불규칙한 움직임을 만든다. 똑똑, 철판 위로 갈색 액체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일은 썩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다. 사람 이면의 감정, 비참하고 슬프고 무섭고 억겨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라 하니 성공한 셈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이 공간은 과거 런던 템스강 남쪽 Southwark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던 발전소 Bankside Power Station였다. 2000년 이후 도심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며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 주변은 빈민가였다. 정수 시스템이 체계화되기 이전 많은 사람들은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병들었고, 1952년 런던 스모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지역도 발전소 주변이다. 누군가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가난, 누군가에게는 그마저도 희망이었을 이곳에서 소리 없이 사라진 많은 영혼의 감정이 작품의 근원이 된다. 매년 이 공간에 설치된 일련의 작업은 터바인홀이 주는 공간의 무게와 힘을 겨뤘다면, 이미래의 작업은 공간 자체를 산업 구조의 자궁으로 상징하고 그 공간에 기생하며 관람객에게 존재감을 드러낸다.

# 시선

2024  
PLAY-UP 아카데미  
서울연극창작센터  
특별 프로그램

# 끝의 연극

2024.  
11.22. (FRI) - 12.20. (FRI)

매주 금요일 15:00 - 17:00

서울연극창작센터 1F 블랙박스

**황석희**

번역가의 시선

**강내영**

배리어프리버전 제작자의 시선

**박해수**

배우의 시선

**박상봉**

무대 디자이너의 시선

**신유청**

연출가의 시선

COULD MIND

스크린 너머의 세상  
살아남은 사람에게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가  
걸다가 마주친 춤  
무용수를 지우고 춤만 평가할 수 있을까  
낮말은 새가 듣고 날말은 시가 줘는다  
익은 사람은 읽은 사람—익다  
서울, 문화가 뿌리내린 도시  
장단의 고수, 판소리고법  
예술의 숨결이 공간에 깃들 때  
도심에서 만나는 거짓말 같은 시간

illust ©slowrecipe



SEOUL M! SOUL

오마니  
시도관  
자랑

20<sup>th</sup>



서울연극창작센터  
Seoul Theater Creation Center

# 살아남은 사람에게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가

이다혜 작가, 씨네21 기자

『2024 김승옥문학상 수상작품집』에는 조해진의 「내일의 송이에게」라는 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송이는 아파트 단지 아래쪽에 자리한 중소 규모 마트에서 닉 달째 일하고 있다. 송이는 하루에 한번, 애초에 산길이었을 아파트 사이의 가파른 길을 뛰듯이 걸어 올라간다. 편의점에서 산 김밥

한 줄과 오백 밀리리터짜리 생수, 그리고 사료와 육포를 넣은 천 가방을 어깨에 멘 채, 텅 빈 레일을 혼자 뛰는 고독한 달리기 선수를 상상하며 달려간다. 미륵이라고 이름붙인 떠돌이 개의 식사까지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날도 급하게 김밥을 먹고는 미륵이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있는데,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다. 얼른 도망간 미륵이처럼 몸을 피하려는데 남자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알은체를 해오는 것이었다.

“십이 년 만이었다.” 조해진은 그렇게 쓰고는 송이와 장훈의 인연을 거슬러 올라간다. 둘은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이 가는 사회복지관 별관의 공부방에서 만났다. 그곳을 다니는 아이들의 구성은 자주 달라졌다. 송이는 작별 인사없이 속내도 밝히지 않고 공부방에서 멀어졌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에 입소하게 되어서,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은둔하거나 이런저런 범죄로 소년원에 송치되면서, 아니면 그저 인터넷 게임에 미쳐 있거나 방에서 걸어 나올 수조차 없을 만큼 무기력에 빠져서” 그곳을 떠난 아이들이 많았다. 장훈은 미륵사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체육관 공사 현장에 묵고 있다고 했다. 장훈은 공부방에 같이 다녔던 형석이와 수희를 언급하는데, 송이는 기억나지 않는 척하지만 사실은 잘 기억하고 있다. “그애는 그녀보다 수희나 형석과 더 가까웠다.”

「내일의 송이에게」는 두 겹으로 된 이야기다. 한 겹은 청년 빈곤을 다룬다. 작가가 이 소설을 쓰는 동안 자주 들춰본 책으로 강지나의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sup>2023</sup>와 유가영의 「바람이 되어 살아낼게」<sup>2024</sup>를 언급하기도 했다. 송이는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을 보면 부모가 떠올랐다. “미안한 마음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분해되지 않는 결정으로 가슴 밑바닥을 향해 끝없이 추락해가는 것, 그녀에게는 그 영원한 추락의 상태가 죄책감이었다.” 송이는 열여섯 살 때부터 아르바이트하며 부모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송이는 조금씩 부모에게, 그들의 울분과 슬픔에 지쳐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엄마 집에서 나온 송이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임대료가 싼 방에서 일이 년씩 머물렀다. 장훈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내일의 송이에게」를 둘러싼 또 한 겹의 이야기는 노란색 조명을 밝힌 조각배와 관련 있다. “4월이 지나면 창고에 방치”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각배. 고백은 갑작스럽게 이어진다. “친구였거나 친구의 친구였거나, 사귀는 중이거나 사귀다 헤어진 관계였거나, 아니면 고백한 적 있거나 고백조차 못 한 채 혼자 특별한 마음만 품어본 대상이었거나, 학교는 달라도 어떻게든 연결하면 결국 연결되는 이들이 차가워진 몸으로, 때로는 툭 치면 깨어날 것 같은 온전한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멍든 채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날들이 있었다. 언제나 울 준비가 되어 있던 학교 아이들, 한 명이 울기 시작하면 이내 여러 겹의 훌쩍임으로 출렁이던 교실”의 풍경을 떠올리는 송이를 따라 우리는 송이가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애”가 ‘그 배’에 탔다가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 중 하나임을 알게 된다. 조해진의 작가

노트에는 조현철 감독의 영화 「너와 나」<sup>2023</sup>도 언급되어 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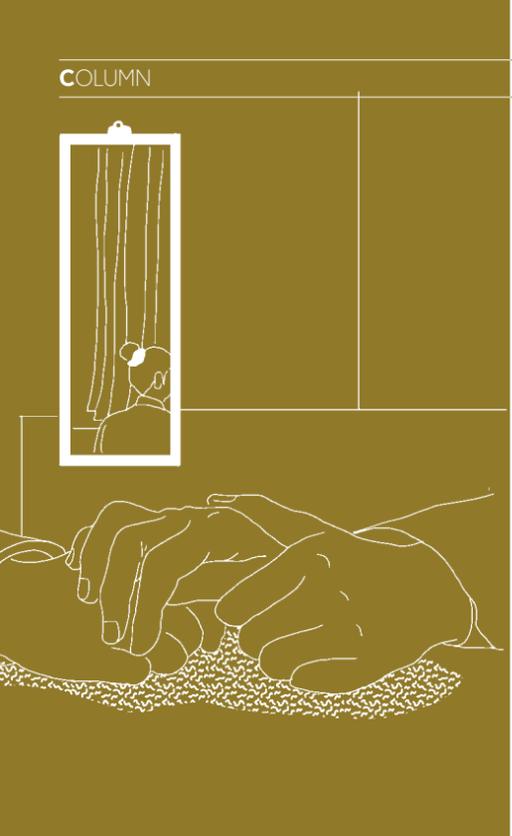
오카마리의 책 『기억·서사』<sup>2024</sup>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사건’의 기억을 나누어 갖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사건’의 기억을 타자와 나누어 갖기 위해 ‘사건’은 먼저 이야기되어야만 한다. 전달되어야만 한다. ‘사건’의 기억을 타자와 공유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건’의 기억을 타자와 진정으로 나누어 갖는 형태로 ‘사건’의 기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와 같은 서사는 과연 가능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리얼리즘이 보여주는 정교함의 문제인 것일까. 하지만 리얼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수많은 물음이 생겨난다.”

「너와 나」와 「내일의 송이에게」는 기억의 문제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룬다. 시대의 아픔으로 남은 사건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 「너와 나」는 단적인 세미와 하은의 이야기로 보여준다. 얼마 전 자전거에 치이는 바람에 수학여행을 갈 수 없게 된 하은을 보는 세미의 마음은 불안하다. 수학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날 세미는 하은이 죽어 누워 있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수학여행을 가자고 하는 세미와 어쩔 수 없다는 하은은 다투게 되고, 세미는 혼자 수학여행을 떠나는 배에 오른다.

조해진은 「너와 나」가 좋았던 이유가 “구체적이어서”라고 말한다. 영화에 그려진 아이들이 구체적이어서 그렇게나 좋았다고. 추모관이나 추모공원의 사진 속 이미지가 아니라,

삼백사 명의 희생자 중 한 명이 아니라, “필요 없어 보이는 물건을 주문한 엄마에게 잔소리를 하고, 화랑공원에서 중앙역까지 가는 버스에서 친구와 수다떨며 정신없이 웃다가도 해지는 걸 보며 감동받을 때도 있으며, 팔빙수 속 떡을 더 많이 먹은 친구와 싸우기도 하는 아이(들)가 그 영화 속에 있”기 때문이었다고 「내일의 송이에게」에서 역시 마찬가지다. 소설 속 “그애”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티커 모으는 걸 좋아했다. 단짠은 아니었지만, 그애의 죽음으로 인한 상흔이 송이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살아남은 사람에게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가?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이 송이의 마음속을 떠돈다. 어쩌면 그 질문은, 자신을 끌어내리기만 하는 부모를 떠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른다. 표류하는 나날 속에서 송이가 장훈과 마주치면서, 기억 속 장훈이 자신을 바라보던 얼굴을 떠올리면서, 꿈을 꾸는 것 같은 상상을 하고 또 이내 현실로 천천히 내려앉는다. 슬픈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먼저 떠난 사람을 어떤 기억 속에 장례 지내고 애도하고 있는가. 차마 묻지 못하는 마음을 고이 접어 쓴 소설은, 살아남은 송이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부서지거나 훼손되지 않은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을 세상을 향해서. 소설을 읽은 다음에 “주인공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제발 죽지 않았으면, 사랑하고 사랑받았으면” 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다. 「내일의 송이에게」도 그런 소설이다.



# 무용수를 지우고 춤만 평가할 수 있을까

정욱희 무용평론가

검은 안대를 두른 백종원이 떡갈비를 한 입 먹고 말합니다. “그 치즈, 냄새 많이 나는 거. 근데 쿵쿵한 게 하나 더 들어갔는데. 젓갈도 있는데?” 초조하게 심사위원의 안색을 살피던 참가자가 깜짝 놀랍니다. 쿵쿵한 냄새가 나는 치즈를 사용한 소스와 갈치속젓이 들어간 떡갈비였거든요.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화려한 스킬로 먹음직스러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요리 대결 프로그램은 언제 봐도 재미있지만 <흑백요리사>는 특히 두 심사위원이 안대를 두르고 음식을 평가하는 에피소드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명세를 구축한 백수저 요리사와 덜 알려진 흑수저 요리사의 일대일 경연인 만큼 명성에 영향받지 않고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하려는 의도겠지요. 물론 음식의 색깔이나 플레이팅 역시 요리의 일부라고 보는 입장에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직 맛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술이나 음악에선 블라인드 심사가 일반적입니다. 작품이 작가로부터 분리된 미술에선 쉬운 일입니다. 입시 철이 되면 넓은 체육관 바닥에 그림을

늘어놓고 심사하는 사진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음악에서도 가림막을 세우고 연주하여 소리로만 판단하는 블라인드 심사가 흔합니다. 물론 어떻게라도 꼼수를 부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영화 <타르>에서는 오케스트라 오디션 장면이 나옵니다. 화장실에서 마주친 참가자에게 매력을 느낀 주인공 지휘자는 발걸음 소리로, 그리고 가림막 아래로 슬쩍 비친 신발 모양으로 알아채고 점수를 조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각을 배제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에 꽤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춤에선 좀처럼 블라인드 심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예 포기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시 철이면 학교의 무용스튜디오, 심지어는 건물 전체의 창문을 종이로 꼼꼼히 가리지만 정작 오디션 장에선 온몸과 얼굴을 드러낸 채 춤춥니다. 춤은 몸에서 좀처럼 분리하기 어려운 데다 팔다리뿐 아니라 얼굴까지 춤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흑백요리사>의 잣대로 보면 춤 심사 방식은 공정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여기엔 외모나 체격 대신 오로지 실력을 평가해야 공정하다는 생각, 그리고 실력이란 선천적이고 가시적인 요소가 아니라 후천적이고 비가시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둘을 구별해야겠죠. 이게 가능할까요?

춤에는 춤추는 주체dancer, 춤 작품dance, 그리고 춤추는 행위dancing가 한데 얽혀 있습니다. 이를 무용 철학자들은 ‘춤의 삼위일체’라 표현했습니다. 오디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은 비가시적이고 후천적인 춤 행위일 것입니다. 주체로부터 작품과 행위를 떼어낼 수

있을까요? 유명한 시인 에이츠는 이렇게 노래했지요. “어찌 춤에서 춤추는 이를 구별할 수 있으리How can we know the dancer from dance?” 주체와 작품, 행위는 쉽게 분리할 수 없기에 춤은 어느 영역보다도 본질적이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춤에서 주체, 작품, 그리고 행위는 오래전부터 조금씩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인 게기가 무보舞譜, dance notation의 발달입니다. 무보는 마치 악보처럼 춤에서 작품을 분리해 기록하는 매체입니다. 종이에 그려진 무보가 산 넘고 강 넘어 전달되면서 춤이 퍼져갔습니다. 꼭 춤꾼이 이동하지 않아도 춤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춤의 주체와 행위 역시 분리되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발전한 기술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 애니메이션 기술이었던 로토스코프Rotoscope는 무용수의 움직임을 영상 매체로 촬영한 후 프레임 하나하나에서 새로운 캐릭터로 그려 넣는 방식입니다. 당대 유명한 춤꾼의 영상이 토끼나 생쥐 같은 만화캐릭터의 춤으로 변환되면서 춤꾼의 존재가 지워졌습니다.

로토스코프가 주체로부터 행위를 분리시키는 아날로그 방식이라면, 대표적인 디지털 방식은 모션캡처motion capture입니다. 이름 그대로 움직임을 잡아내는 기술이라 할 수 있죠. 무용수의 몸 각 부위에 센서를 부착하여 3차원적 위치를 데이터화하면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춤에서 무용수를 지운 허깨비 같은 행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원심분리기를 돌리듯 춤에서 주체와 작품, 행위를 분리했으니 이제 우리는 무용수를 보지 않고도 그 행위만을 볼 수 있습니다. 눈 뜨고도 블라인드 심사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아직까지 춤계에선 시각성을 완전히 배제한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각성 너머의 평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으니, 바로 댄스 비디오 게임입니다. 댄스 게임은 발판과 자이로 센서·카메라 등을 통해 플레이어의 모션을 인식하고, 화면에서 제시된 움직임 지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여기엔 플레이어의 외모나 체형, 정체성 등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더없이 공정한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댄스 비디오 게임이 e-스포츠로 확장되면서 플레이어들은 집에서 혼자 게임을 하는 대신 군중 앞이나 무대 위에서 춤추게 되었습니다. <저스트 댄스>와 같은 게임에선 화면 속 ‘코치’ 혹은 플레이어의 행위를 반영한 아바타가 플레이어와 함께 춤춥니다. 이때 플레이어의 외모가 전형적인 댄서나 화려한 아바타의 외모에서 멀수록 쾌감을 선사합니다. 심사위원이 플레이어를 직접 보면서 평가한다면 아마도 편견이 작용했겠지만, 센서로 인식하고 아바타로 재현한 춤 데이터를 기계가 평가하니 편견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눈의 평가와 데이터의 평가가 차이 날수록 재미있죠. 이러한 방식은 기존 춤계에서 소외된 이들을 포용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댄스 비디오 게임이 발전하다보면 언젠가 플레이어는 무대 뒤로 숨고 아바타만 나타나 경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춤에서 무용수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수행의 수월성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대로 눈을 가린 백종원의 심사처럼 더없이 공정한 심사가 되겠지요. 인간미가 없다고요? 글썄, 우린 이미 버추얼 아이돌에게 열광하고 AI가 생성한 스파게티 국수의 춤을 흥미롭게 보는 시대에 살고 있는걸요.





# 익은 사람은 읽은 사람 —익다

오은 시인

가을이 되면 으레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을 처음 접했을 때다. 선생님이 “왜 그럴까요?”라고 아이들을 향해 물었던 순간, 나는 손을 번쩍 들었다. “벼 이삭이 익으면 무거워지니까요?” 몇몇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당연한 이야기를 왜 그리도 뻔뻔하게 하느냐는 날카로운 눈초리가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머리를 긁적이며 선생님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그것도 맞지요. 여문 낱알은 무겁겠지요. 사과나 배도 익으면서 크고 단단해지잖아요.” 선생님은 아마 속담이 품고 있는 속뜻을 물었을 것이다. “익는 일은 겸손해지는 일이에요.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스스로 낮출 줄 아는 거지요.” 번쩍 든 손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가을은 어쩔 수 없이 익는 계절이다. 황금빛에 가까운 노란 들판을 바라볼 때면 가을이 성큼 왔음을 직감한다. 농익은 감이 나무에서 별안간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 바람에 설익은 상태로 새 계절에 접어든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올해 추석 상차림에 오른 사과는 붉은 기운이 거의 없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익을 때를 놓친 것처럼 보였다. 작황이 부진해서 어두운 낮빛의 농민들을 보니, 제때 익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된다. 제대로 잘 익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무르익다’라고 표현하곤 한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분위기가 무르익는 동안, 사람 또한 무르익는다. 무르익은 사람은 철든 사람일 것이다. 남 앞에서 스스로 낮출 줄 알면서도, 필요할 때면 숨겨둔 기량을 발휘해서 주변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

‘익다’는 동사와 형용사로 쓰인다. 동사일 때는 “얼매나 씨가 여물다”, “고기나 채소, 곡식 따위의 날것이 뜨거운 열을 받아 그 성질과 맛이 달라지다”, “김치, 술, 장 따위가 맛이 들다”, “불이나 별을 오래 쬐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서 살갗이 빨갱게 되다”, “씩히려고 하는 것이 잘 썩다”, “사물이나 시기 따위가 충분히 마련되거나 알맞게 되다”라는 뜻을 갖는다. 이때는 익기 전후의 변화가 중요할 것이다. 날것이 야물어지거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변하는 일이 ‘익다’의 중심에 있지만, 땀별에 살이 익기도 하고 계절이 마침맞게 익기도 한다. 거름이 익는 일은 농작물을 익게 하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잘 익어야 충분히 익힐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여물고 영그는 과정의 핵심에 바로 ‘익다’가 있다.

형용사로 쓰일 때의 ‘익다’는 경험치와 연결된다. “자주 경험하여 조금도 서투르지 않다”, “여러 번 겪어 설지 않다”, “눈이 어둡거나 밝은 곳에 적응한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 일러주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이나 행동의 반복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형용사 ‘익다’다. 손에 익은 일이 손쉬워지는 것은 당연하고, 어려운 동작도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몸이

절로 기억하게 되는 이치와도 같다. 문화와 풍토 등 삶의 바탕이 되는 것도 익을 수 있다. 낯선 곳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지만, 며칠 지나다 보면 낯섬의 자리에 낯익음이 자리한다. 일상에 침투한 익은 상태는 안온한 마음을 품게 해준다. 익은 다음에야 비로소 특정 장소에 깃들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눈이 익어야 빛과 어둠 속에서 상태를 파악하고, 멜로디가 귀에 익어야 입을 열고 따라 부를 수 있다. 이때의 ‘익다’는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상태다.

“폭 무르게 익지 않고 설익다”라는 뜻으로 ‘데익다’라는 단어가 쓰인다. 데익은 게 나은지 더 익은 게 나은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당장 먹기에는 더 익은 게 나을지 몰라도 최상의 맛은 데익은 것을 숙성시키는 데서 찾아올 것이다. 밥을 지은 후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중요한 말을 하기 전 잠시 머뭇거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익는 일은 기다리는 일이기도 하다. “일에 경험이 많아서 어떤 일에도 익숙하다”라는 뜻을 가리키는 ‘신익다’라는 단어도 있다. 이때의 신은 신념을 가리키는데, <생활의 달인>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이들을 떠올리면 절로 수궁이 된다. 손발이 보이지 않는 놀라운 경지를 마주할 때, 익음은 신묘함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벼 이삭이 익을 대로 익어 꽃대 부분이 땅에 닿는 장면을 떠올린다. 내가 자란 땅에 다시 도착하기,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풍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밭 디디고 서 있는 곳은 흔히 터전이라고 불리지만, 그 존재성을 느끼는 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당연한

것을 들여다보게 하고 거기서 어떤 섭리를 발견하게 하기, 가을은 이를 가능하게 한다. 익지 않아서, 익지 못해서 우리는 자꾸 뒤돌아본다. 뒤 놓친 것은 없는지, 급하게 오느라 빠뜨린 것은 없는지 살피는 동안 ‘익는 일’은 ‘익히는 일’이 된다. 계획대로 잘 살고 있는지 자문하고 내게 알맞은 상태가 어떤 것일지 생각을 궁글리는 것이다. 가을 타는 이들이 유독 많은 것은 낙엽을 밟고 지나갈 때 바스락바스락 내면이 웅성대기 때문이다.

‘익다’와 몸이 만나면 능숙한 상태가 된다. 귀에 익은 소리는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그 소리를 녹음해두었다가 긴장될 때 틀어놓으면 심신이 차분해진다. 눈에 익은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풀게 된다. 산책이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것도 보통 익숙한 길에서 그것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 벤치, 저 나무, 그 돌 등 눈에 익은 것들을 보면 여전한 데서 깃드는 평온함을 발견할 수 있다. 발이 익은 길은 내 생활을 지탱해주는 동력이기도 하다. 이 길 위에 언제까지 내 흔적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발씨가 익어가는 동안만큼은 익숙함과 새로움이 번갈아 내게 찾아올 것이다. 손에 익은 일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지만, 방심하는 순간 일을 그르칠지도 모른다. “익은 밥이 날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속담이 이를 뒷받침한다.

문득 내가 ‘익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읽다’와 발음이 똑같아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읽는 일은 익는 일이다. 익은 사람은 읽은 사람이다.

## 장단의 고수, 판소리고법

김보나 칼럼니스트

기억은 2016년 봄으로 거슬러 간다. 살짝 후텁지근하고 포근한 햇살이 기분 좋은 날이었다. 남산 자락에 만들어진 한옥 마루에서 그를 만났다. 광주 권번에서 소리 공부를 시작하고 1944년 동일창극단을 거쳐 80여 년간 소리꾼으로 살아온 그는 작은 체구에서도 오라가 뿔어져 나왔다. 담담하게 무대를 준비하는 그의 얼굴에 봄날 만개한 꽃처럼 온화한 미소가 피어올라 나도 모르게 따라 웃었다.

“토요일 3시에 국립극장에서 홍보가 완창 공연을 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또 가난한 소리꾼이라는 소문도 있었던 터라 내심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공연 당일,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오는 거예요. 손님이 없는데 어찌나 하고 마음을 졸이며 무대에 섰는데, 2층까지 객석이 꽉 차 있었어요.” 무대에 함께 오른 고수가 좀 쉬었다가 하라며 소리꾼을 말할 정도였다고 하니 무대에서 느낀 희열과 관객의 열기를 상상해볼 적하다. (2016년 박송희 명창 인터뷰)

1986년 4월 26일 작은 체구의 여성 소리꾼, 박송희가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무대에서 ‘홍보가’를 불렀다. 극장장이던 허규는 김영자·은희진과 함께 그를 미래의 주역으로 소개하며 공연에 의미를 더했고, 최종민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박녹주의 제자가 공력이 필요한 소리를 완창하게 된 점에 큰 기대를 표했다. 430석에 달하는 소극장이 관객으로 가득 찼고, 그 모습에 소리꾼은 어느 때보다 큰 감동과 힘을 얻었다고 회고했다. 관객은 수시로 박수치고 웃으며 공연을 즐겼다. 심지어 무대로 뛰어올라 춤을 춘 관객이 있을 정도로 박송희의 첫 완창 무대는 성황을 이뤘다.

예순이 다 된 나이에 연 첫 번째 완창이 낫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는 건 소리꾼뿐만 아니라 공연 기획자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간과한 것이 있다. 공연 프로그램 북에 이름 석 자 달랑 실렸을 뿐이고, 성황을 알리는 기사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지만, 이 공연을 성공으로 이끈 숨은 히어로가 있다는 것. 소리꾼을 말리며 완급 조절을 맡아준 고수, 고수 김동진이다.

소리판의 성패를 오롯이 소리꾼의 실력에 집중해 판단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소리판에서 소리꾼과 고수는 한 팀이다. 아무리 소리꾼이 잘해도 고수가 판을 잘 이끌어주지 않으면 다리 길이가 맞지 않는 식탁처럼 흔들리기 마련이다. 흔들리는 식탁 위에 놓인 것들은 곧잘 쏟아지고 흐트러진다. 소리꾼이 혼신을 다시 소리한대도, 고수의 적절한 북반주가 있어야 그 소리의 참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마디로 소리뿐만 아니라 고수의 역할이 공연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된다. 1986년의 공연은 최고의 말에서 알 수 있듯 대성공을 거뒀다. 늦깎이 소리꾼과 고수의 환상적 호흡도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 다만 고수에 관한 언급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이쉬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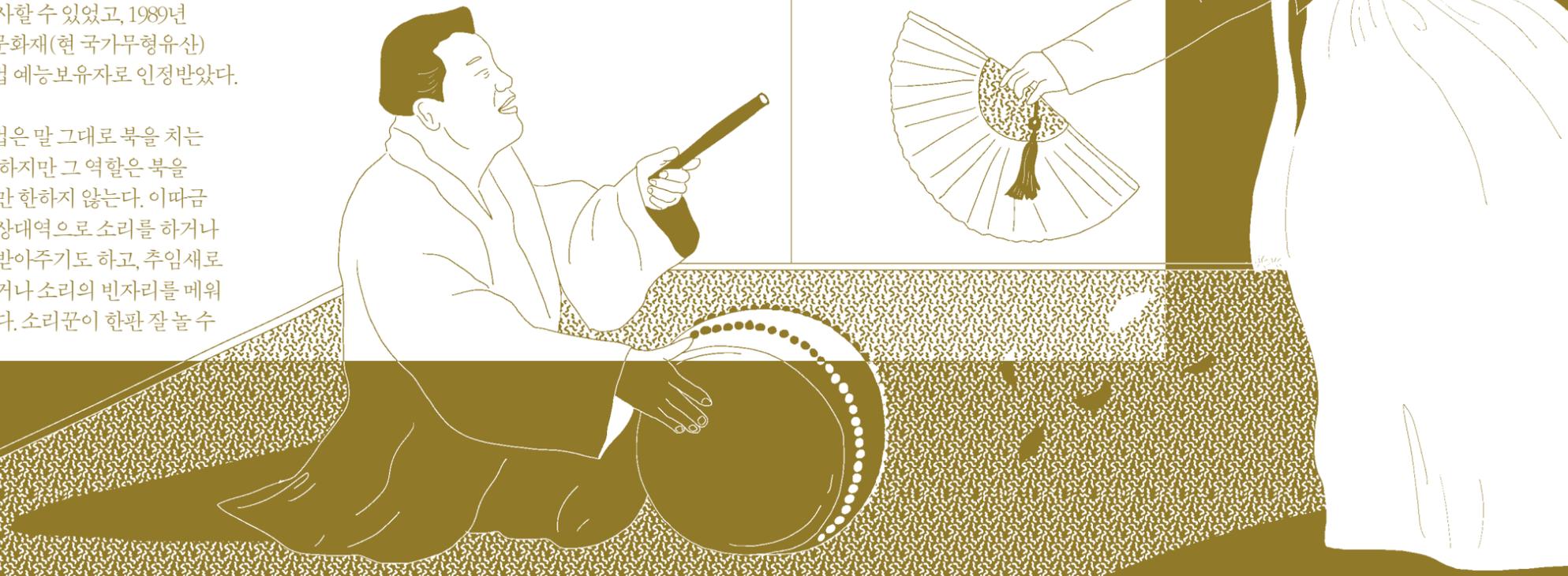
비록 화려한 수식이나 기록은 없지만, 김동진은 고수로 꾸준히 활약하며 여러 음원과 자료를 남겼다. 북으로 소리의 완급을 조절하고 장단을 휘몰아 좌중을 휘어잡는 장단의 고수 高手다운 고수 鼓手의 행보였다. 고수에 대한 인정이 온전하지 않던 시절, 김동진이 명고수로 성장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소리를 잘 이해하고 무대 위 소리꾼과 밀접하게 호흡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소리꾼에서 시작된 그의 사사 내력에서 엿볼 수 있는데, 김동진은 13세부터 담양에서 박동실에게 ‘심청가’, ‘적벽가’ 등을 사사해 20세부터는 후학을 양성하기도 한 인물이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30대엔 김연수에게 ‘춘향가’를 사사해 소리 공부를 이어갈 만큼 열정적이었다. 이렇게 쪽 소리꾼의 삶을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싶지만, 40세 무렵 목소리가 변하면서 소리를 지속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소리판을 벗어나고 싶지는 않았던 그는 자연스럽게 북을 치기 시작했다. 30년 넘게 소리를 해온 그이기에 누구보다 소리 구성을 잘 알았다. 그 덕에 세밀한 고법을 구사할 수 있었고, 1989년 중요무형문화제(현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판소리고법은 말 그대로 북을 치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 역할은 북을 치는 것에만 한하지 않는다. 이따금 소리꾼의 상대역으로 소리를 하거나 아니리를 받아주기도 하고, 추임새로 흥을 돋우거나 소리의 빈자리를 메워 주기도 한다. 소리꾼이 한판 잘 놀 수

있으려면 함께하는 고수도 한판 잘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하는 거다. 그런데도, 판소리고법은 오랜 시간 세간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고 1964년 12월에 중요제례악을 시작으로 판소리 등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판소리고법은 1978년 2월에서야 등재됐고, 이마저도 1991년 2월 판소리에 흡수되면서 지정 해제됐다. 물론 이러한 판소리고법의 중요성을 토대로, 전북특별자치도 1992~(판소리장단), 광주광역시 1995~, 전라남도 2002~2019, 대전광역시 2008~, 인천광역시 2013~ 에서 판소리고법을 지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역시 2001년 정화영 고수를 보유자로 지정하고 ‘판소리고법’을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 참고로 정화영 고수는 고 김동진의 제자다.

박송희는 필자가 만난 2016년을 기준으로, 소리 인생 중 잊지 못할 무대로 이 무대를 꼽았다. 무려 72년이라는 시간을 더듬어 고른

기억이다. 소리꾼에게나 고수에게나 ‘완창’은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단어다. 둘이 힘을 잘 맞춰 잘하는 소리 한 대목만 뽑내듯 부르는 것만도 쉽지 않을진대, 기승전결에 따라 관객을 울고 웃기며 한바탕 긴 이야기를 끌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래서 더 도전적이고, 이뤘을 때 높이 평가받기도 한다. 국립극장에서는 1984년 12월 ‘신재효 100주기 기념공연’을 계기로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완창판소리를 공연했고, 올해로 40년을 맞이한다. 어려운 공연이나 놓을 수 없는 무대로 꾸준히 사랑받는 완창판소리는 12월이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를 담아 송년 판소리를 연다. 지금은 원로 소리꾼으로, 또 타계한 판소리 예능보유자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박송희가 당시 차세대 소리꾼으로 소개됐듯, 젊은 소리꾼과 고수에게 완창판소리는 도전의 장이 된다. 판소리 한 바탕을 오롯이 감상할 기회의 순간을 선사하는 공연, 다음 세대를 기약하며 소리꾼 옆에 좌정한 고수의 역할을 눈여겨볼 시간이다.





## 도심에서 만나는 거짓말 같은 시간

박이현 **텍서리 매거진 피쳐 디렉터**

원연한 가을이 찾아왔다. 붉은색과 노란색의 향연을 보노라면, 점점 차가워지는 공기를 맞을 준비라도 하는지 어느새 가슴이 데워진다. 이 무렵 단풍 명소로 불리는 곳에 인파가 넘치는 건 당연지사다. 그런데 문득 품에 머금은 온기가 북적이는 사람들의 체온에서 기인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번 가을엔 해마다 진행되는 의식에 변화를 줘야겠다. 뻘하지 않게 계절을 넘어서는 것도 허우룩해질 일상을 채우는 양식이 되지 않을까. 가을의 정취를 흠뻑 자아내는 도심 속 거짓말 같은 미술 세계를 소개한다.

회현동에 자리 잡은 복합문화공간 피크닉에서 소풍 같은 시간이 펼쳐진다. 하지만 최근의 화려한 휴식보다는 되레 20세기 초중반의 고즈넉한 분위기로 그득하다. 주인공은 일본 사진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우에다 쇼지(Shoji Ueda)다. 이름은 생경할지라도, 그의 사진은 어디서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테다. 돗토리현의 사구(모래 언덕)에서 몽환적으로 찍은 흑백 사진 <네 명의 소녀, 네 가지 포즈>, <아빠와 엄마와 아이들>은 오늘날에도 자주 오마주되는 작품인 까닭. 작가만이 구사할 수 있는 오라(aura)는 해외에서 그의 이름을 따라 '우에다조(Ueda-Cho)'라 부를 정도로 유명하다. 10대에 카메라를 든 우에다 쇼지는 70여 년 동안 활동하면서 대도시에 진출하는 대신 평생 고향에



머무르며 가족, 어린이, 시골 사람들의 모습을 소박하게 담아냈다. 늘 "시골에 사는 아따추어일 뿐"이라고 결손의 말을 했는데,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 건 서터를 누르는 열정이 아니었는지 추측해본다.

우에다 쇼지의 사진에서 주목할 점은 평범한 장면이 연극 무대처럼 연출됐다는 사실. 피사체를 매우 정교하게 배치한 방식은 당시 전통적인 다큐멘터리 스타일과는 대조적이나, 사진의 예술적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 3월 2일까지 개최되는 《우에다 쇼지 모래극장》은 우에다조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는 오리지널 프린트 180여 점으로 구성된다. 유년 시절의 습작, 어린이들의 초상, 정물과 후기 컬러 사진을 테마별로 감상할 수 있으며, 전시장을 뚫토리 사구가 빚어낸 유려한 곡선을 닮은 구조로 디자인해 실제 촬영 현장을 거니는 효과를 낸다. 한국에서 쉬이 만날 수 없는 작가인 만큼, 예술을 통한 고요하고 차분한 심을 원한다면 놓치지 말 것.

한편, 회현동에서 대중교통으로 15분 거리의 용산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는 거대한 수영장이 들어서 있다. 유럽에서 불법한 약 45평 규모의 단독주택, 레스토랑 등도 지어졌다. 사막 한복판에 프라다 매장을 세운 작업 <프라다 마피아(Prada Mafia) 2005와 전시실을 공항·기차역·병동 등으로 전환해 공간에 대한 독창적 시각을 제시해 온 아티스트 듀오 엘름그린&드라그셋(Elmgreen & Dragset)의 전시 《Spaces》(2025년 2월 23일까지)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관객이 미술관을 다르게 바라보기를 바랐어요. 남의 집을 들여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레스토랑에서 포크와 나이프를 들기 전 사진부터 찍는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엔 작품이 불연속적인 소셜미디어 피드로 다가올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바라보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정해진 이야기는 없어요.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구축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 감상을 위해 약간의 정보를 전달하자면, 먼저 수영장은 이들의 작업에서 반복되는 공공장소의 쇠퇴와 공동체의 상실을 암시한다. 눈에 띄는 점은 수영장을 무대로 등장한 백색 조각들은 상호 교류 없이 각자의 일에 몰두해 있다는 것. 이는 현대의 남성성과 고립 및 성장이라는 실존적 질문을 던지는 데 의의가 있다. 또 식당 테이블에 앉아 영상통화를 하는 사람을 표현한 작업에선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마주하게 된다. 작업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감정·정신적으로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존재와 부재의 동시성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이들을 종합하는 (개인적으로 발견한) 독특한 연결고리도 있다. 수영장에서 어딘가를 응시하는 안전요원, 단독주택 거실 안에서 어딘가를 바라보는 소년, 2개의 세면대와 거울을 연결하는 배수관 조각은 너와 내가 서로 다른 시공간에 있을지라도 네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던지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호암미술관에선 '파스텔의 마법사'라 불리는 니컬러스 파티(Nicolas Party)의 개인전 《더스트》가 내년 1월 19일까지 열린다. 호암미술관에 방문하면 울긋불긋 색동옷을 입은 미술관 절경과 작가가 창조한 우아한 색채가 어우러져 가을의 절정을 만끽할 수 있다. 니컬러스 파티의 캔버스는 그야말로 미술사의 보고다. 18세기

로코코 시대에 유행한 파스텔화를 소환하는 것은 물론, 르네 마그리트·앙리 루소·조르조 모란디 등 거장의 화풍을 작업에 녹여내왔기 때문.

《더스트》도 비슷하다. 작가는 리움미술관의 고미술 소장품을 참조하고, 나아가 고미술품을 작품과 병치했다. 어쩌면 고개를 가우뚱할 수 있는 요소의 조합은 시대와 문화를 넘나드는 대화를 일으켜 흥미롭다. 대표적 예로, 어머니의 자궁을 상징하는 '동굴'을 그린 벽화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조선 시대 '백자 태호'를 앞뒤로 설치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동굴은 탄생과 죽음을 동시에 뜻하는 미지의 공간이에요. 예수님은 동굴과 유사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돌아가신 후에는 동굴에서 부활했죠. 부처님은 동굴 안에서 수행했구요. 한편, 조선 시대에는 아기의 태반과 탯줄을 항아리에 넣어 보관했어요. 특히, 왕손의 태반은 백자 항아리에 넣어 풍수지리가 좋은 땅에 묻고,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빌었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생과 사, 불멸의 연관성이 신비롭게 다가오지 않나요?"

이와 더불어 전시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건 작가가 미술관 벽에 직접 그린 파스텔 벽화가 전시 종료 후에 지워진다는 것. 연약하고 일시적인 재료인 파스텔이 생로병사와 이어지는 모양새다. 흡사 전시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주는데, '일시성'이라는 개념이 보는 이를 전시에 더욱 몰입하게 하니, 벽화가 사라지기 전에 눈으로 꼭 확인해보길 바란다. 비록 일시적이지만 아름다움은 마음에 아로새겨지는 가을 단풍처럼 니컬러스 파티의 파스텔 역시 영원이라는 마법을 당신에게 부릴 것이다.



